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87 1982년 7월29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July 29, 1982

JUL 30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0 St. George Street
8…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화랑팀 본고장 하키의 위력 발휘

휘문 첫 고배(5 : 2)

연습부족 · 전법미숙등 드러나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다. 멀리 고국에서 날아온 손님 휘문고 하키팀을 맞은 교포 고등부하키팀 화랑은 스케이팅과 전법의 우세에 힘입어 5:2로 휘문을 가볍게 누르고 서전을 장식했다.

27일 체스우드 아레나(4000 Chesswood Dr.)에서 열린 휘문·화랑의 제1차경기에서 화랑의 이승우(넘버 77)와 장기민(넘버 66)군이 각각 2골을 올린후 19번 최상길군이 마지막골을 넣어 5점을 낚아챘다.

스코아가 말해주듯 이 경기는 화랑의 일방적게임은 아니었다. 2년전 토론토를 방문, 이미 「위대한 캐나다하키」(The Mighty Canadian Hocky)를 익히고 돌아갔던 휘문고의 주장 강보현(넘버 18)군은 홈그라운드에 돌아온듯 링크를 종횡무진 누비며 2골을 기록, 장래의 한국하키를 이끌어갈 소지를 보였다.

토론토 방문중 휘문고팀을 트레이닝시키고 있는 캐네디안코취 폴·토코프씨는 경기를 지켜보고난 뒤 "휘문고와 화랑팀의 실력차이가 많은 것은 아니다. 휘문이 몇가지 전법을 익히고 나면 훨씬 좋은 경기를 펼칠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토코프씨는 "휘문선수들이 연습부족으로 스케이팅과 체력면에서 딸리나 몇일 더 익히면 곧 따라잡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휘문고의 임병철코취는 "힘이 딸린 것이 패인이다. 배우는 자세에서 캐나다하키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27일 서울방문을 마치고 토론토로 돌아온 화랑팀의 이영현단장은 "실력보다는 캐나다하키를 익히고 못익힌 차이일 것이다. 휘문고 선수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 한국하키 발전의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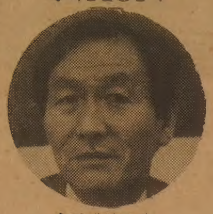
이날 체스우드아레나에는 100여명의 교포및 휘문고동창들이 모였다. 15분, 15분, 15분의 3피리어드 경기로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화랑은 이승우군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으나 휘문의 강보현군이 동점골을 만들어 백중지세의 경기인듯이 보였다 이후 화랑은 개인기의 우세를 살려 4골을 연속 터뜨려 경기를 리드해 나갔다.

화랑과 휘문은 찬스에서 숏을 쏘는데서도 차이를 보였다. 화랑은 거리와 관계없이 블루라인만 넘으면 과감히 롱·숏을 날려 휘문골리 장한선군을 당황케 했다.

휘문고는 숏챈스에서 숏을 날리는 센스, 민첩성등이 부족했다.

한편 휘문고팀 단장 김태식교장등 임원들은 27일 토론토총영사관을 방문, 이상훈총영사등과 환담을 나누었다.

◆이상훈총영사



◆김태식교장

이상훈총영사는 "점점 긴밀해져 가는 한가관계에 스포츠팀 교류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식 휘문고교장은 "이번이 2번째 방문이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고 말했다.

휘문고팀은 오는 1일까지 계속 친선경기와 연습을 벌인후 나이아가라등지의 명소관광을 마치고 5일 하오 뉴욕으로 떠날 예정이다.

휘문고의 전경기는 매일 저녁 6시45분 체스우드아레나에서 열린다.

◆휘문고의팀의 주장 강보현군의 강숏이 화랑골리 김에디군옆을 비켜 성공되고 있다. 이 숏의 성공에도 불구 휘문은 5 : 2로 화랑에 패했다.

일본대사관 앞 항의시위 격렬

(서울)일본교과서의 한일합방에 대한 왜곡수정에 항의하는 한국인들이 26일 주한일본대사관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출동, 해산시켰다. 이같은 시위는 1주간 두번이나 있었다.

중공관영 신화사통신도 일본이 한국과 중국대륙을 침략하고도 교과서에 왜곡기록한 것은 그들의 침략근성을 되살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만한당은 공식성명을 발표 『일본의 한국식민지통치기간중의 역사적사실을 교과서에 왜곡기록한 것은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며 일본장관들의 무모한 발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하고 이문제를 논의키위해 곧 모임을 갖기로 했다.

침략➡진출 · 강요➡장려로 둔갑

일 문교장관은 "내정간섭" 운운

(서울27일=연합)일본이 새학기에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에 관한 역사적사실을 왜곡한데 대한 비판의 소리가 가열되는 와중속에 한국역사학자들은 문제가 된 역사적사실들을 분류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또 일본국토청의 마쓰노·유끼야스장관이 지난주 한국의 교과서가 한·일합방을 "일본의 침략"이라고 기술한 것이 잘못이라고 새교과서를 옹호한 것과 헤이지·오가와 일본 문교부장관이 "일본 교과서내용에 한국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고 말한데 대해 가능한 외교조처를 검토중이다.

일본의 구교과서에는 ''일본은 1875년 자국의 상선 「운양호」가 충돌을 일으켜 이 사건을 구실로 일본은 강제로 한국을 개항시켰다"고 나와있으나 새교과서는 "충돌은 한국이 운양호에 포격을 가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이 충돌은 결과적으로 한국으로 하여금 개항하게 했다"라고 기술했다.

또 구교과서에는 1905년 강화조약에 이어 1910년 한·일합방을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invaded)고 기술되어 있으나 새교과서에는 "침략했다"가 "진출했다"(advanced)로 바뀌어졌다.

한편 1919년 일본지배에 항거, 일으킨 3·1독립운동은 전에 "독립을 위한 항거"라고 표현됐으나 지금은 "폭동"이라고 언급됐다.

일본총독부가 1919년부터 8년동안 토지측량을 실시, 실질적으로 한국의 모든 토지를 강점하려고 한 사건을 구교과서 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한국의 토지를 착취했다"라고 표기한 반면 새교과서에는 "한국인들은 토지의 소유권을 잃었다"로 써있다.

1937년 중국침략기간중 일본은 식민지 한국의 종교자유를 억압, 강제로 일본종교 「신도」를 믿게하고 신사참배시켰다. 구교과서에는 이같은 일본의 처사를 "일본은 한국인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다"라고 표현됐으나 신교과서에는 "일본은 한국인에게 신사참배하도록 장려했다"라고 바뀌어졌다.

1938년 일본식민지정부는 한국어강의를 폐지, 41년에는 일본학교의 교과과정이 한국학교에 부과됐고, 43년까지 한국어는 국민학교에서도 일체 교습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구교과서는 "한국어사용은 철폐되고 일본어사용이 강제화됐다"한 반면 새교과서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동시에 사용되었다."라고 고쳐졌다.

같은 기간에 일본이 한국인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한데 대해 구교과서는 "강요"(forced)라 했고 새교과서에는 "장려"(encouraged)로 바뀌어졌다.

구교과서에 따르면 많은 한국인들이 2차대전당시 강제로 일본군에 징병되거나 징용으로 끌려갔으며 젊은 한국여성들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일본군의 성적노리개감이 되었다.

이에 대해 새교과서는 "강제징병됐다"(forcibly drafted)라는 말이 "동원됐다"(mobilized)로 대체됐다.

역사학자들은 한국노동자들의 징용은 1939년부터 시작 45년8월15일 전쟁이 끝나기까지 한국에 414만6천98명 , 일본에 125만9천993명이 배치됐었다. 대부분 한국인 노동자들은 탄광에서 일했으며, 남태평양군도, 동남아시아및 현재는 소련영토인 사할린으로도 끌려갔다. 사할린에는 아직도 그때 징용돼갔던 한국인들과 자녀들이 많이 남아있다.

독약먹고 자살한 듯

간수들 늘 죽음위협

(몬트리얼)몬트리얼 아샹보형무소에서 탈출을 기도하다 3명의 간수를 죽인 폭동의 주범 2명의 죄수는 시안화독약을 먹고 자살했음이 밝혀졌다.

모리스·라니엘 퀘벡검시관은 또 3명의 간수들은 숨지기까지 쇠몽둥이와 칼로 난자당하는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시련을 겪다 죽어갔다고 말했다.

범인들이 어떤 경로로 시안화독약을 구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라니엘씨는 "특히 몬트리얼지역의 형무소에서 시안화독약이 점차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한편 은퇴 40분전 무참히 살해당한 랭드르·르브랑(60)씨를 비롯한 3명의 간수들의 유가족들은 애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르브랑씨는 25년간의 간수생활을 끝내고 여행과 휴식을 기대하다 변을 당했고, 밴·멘·아빌(36)씨는 평소에 늘 업무상 따르는 위험에 대해 두려워해 왔지만 봉급이 좋아 직장을 버리지 못했다고 가족들이 말했다.

한 형무소 직원은 "간수들이 평소에 무기없이 근무하는 반면 죄수들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어 항상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미 외교관들

증언요청 거절

(부산)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26일 미외교관들의 증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단이 요청한 리처드·워커주한미대사와 게리·녱크부산미문화원장의 증언대 출두를 『필요치 않다』고 거부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을 출두시켜 워커대사가 반미시위를 한 한국인들을 『못된 자식들』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증언을 듣겠다고 요청했었다.

한국경제인들 대통령순방 수행

(서울28일=연합)한국의 경제계소식통은 35명 이상의 한국경제및 산업지도자들은 오는 8월17일~31일 예정된 전두환대통령의 캐나다와 세네갈, 케냐, 가봉, 나이제리아의 아프리카 4개국 순방기간동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주요 4경제기구장들을 포함한 한국의 기업인들은 개별적으로 이들 국가들과 경제협력증진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토 한국일보는 우수한 이민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신문입니다.

한국일보 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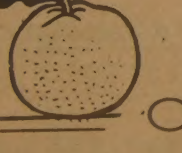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감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출발에서 도착까지.'

즐거운 서울방문은!
도와드리겠읍니다.
서울행 매주 출발
이민, 방문 초청안내
국내, 국제항공표
535-6004 535-8801
신속, 정확한 컴퓨터 써비스
서울여행사
IATA
631 A BLOOR ST. W. TORONTO
최 동 주 R.293-9970



도 매 업
○ 채소 ○ 과일 ○ 화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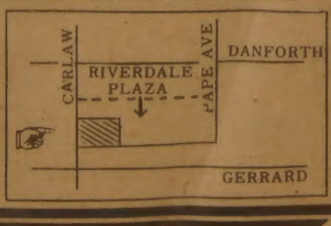
야채 · 과일 · 화초 · 꽃등을 취급하시는 교미여러분 또는 취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매업을 시작했읍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온타리오 FOOD TERMINAL까지 가실 피요가 없읍니다

— 품질 · 가격 · 신용보장.
— 배달은 $150이상 주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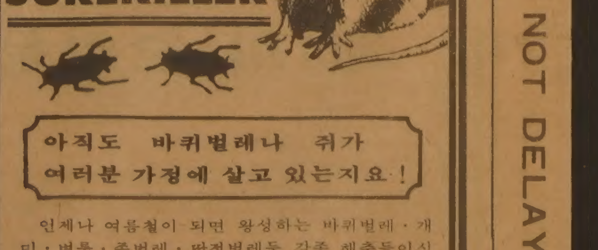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주문시간
오전 9시~오후10시까지(월~토)
오전11시~오후 6시(일)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465-8167 대표 곽덕열



ZAP
SUREKILLER



아직도 바퀴벌레나 쥐가 여러분 가정에 살고 있는지요!

언제나 여름철이 되면 왕성하는 바퀴벌레 · 개미 · 벼룩 · 좀벌레 · 딱정벌레등 각종 해충들이 신경을 자극시킵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상표 "ZAP"Surekiller 는 공인된 약품으로 매우 좋은 효과와 품질로 ONTARIO시장에 널리 알려져있읍니다. 약품구입은 각 한국식품 판매처나, 일반 상점에서도 판매하며 사용이 간편하고 매우 경제적입니다.
"ZAP"Surekiller 는 물과 가루약 두가지로되어 있으며 효과도 동일합니다. 해충 주제나 예방에 대한 문의 환영합니다.

Manufacturer of Insecticide and House Hold Products
THE JOHN LIM CO. 임 태호
전화 : (416)366-0960
368-9018 255-0713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로타리오 한국어로 주2회 교육

온타리오복권공사 교민상점에 관심

로타리오복권 기계를 설치한 교포경영 상점이 온타리오주에서만도 약3백개에 달하자 온타리오 복권공사(Ontario Lottery Corporation)는 교포들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 첫 단계로 정효생씨(Harry Chung)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지난 6월중순 입사한 정씨는 이제까지 약 40명의 교포상점주에게 로타리오 컴퓨터·터미날 작동법을 교육, 이들은 기계가 고장났을 때, 고객이 돈이 없어 발행한 복권을 취소할 때 등의 경우를 당하더라도 종전같이 손해를 보거나 본사와 연락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됐다.

공사측에서는 "한국인들과의 대화에 큰 도움이 돼서 좋고, 상점주들은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고 매상을 더 올려서 좋다"고 기뻐했다.

건국대 법대 졸업후 서울 미8군 사령부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영어를 익힌 정씨는 72년 이민후 상점등을 경영했다.

정씨는 현재 주2회

10여명씩의 교포를 모아 기계작동법을 가르친다.

2 블루어·스트릿·웨스트의 교육실에는 기계가 5대, 한 상점에서 부부및 헬퍼까지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로 교육받는다.

아침에 시작해서 하오3시 끝날 때가 되면 수강자들은 모두 익숙하게 기계를 다룬다.

물론 우리말로 강의되는 점이 전과 다르다.

전에는 다른 민족 상점주들과 함께 영어로 교육, 완전히 납득을 못하더라도 그냥 지나쳤다. 이런 허술한 교육과정이 문제되고 교포가게가 토론토 주변에만 약1천개가 된다는 점에서 교포단독교육안이 마련된 것이다.

"저희 공사는 수강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며 지방 거주자들에게는 왕복비행기표와 호텔비까지 부담합니다. 교포분들은 이런 기회에 캐쉬대에서 잠시 떠나 머리도 식히는 한편 컴퓨터·터미날 작동법도 배운다는 1석2조의 효과를 이용하실수 있읍니다"고 정씨는 26일 말했다.

정씨는 교육이 없는 날이면 인스펙터로서 교포상점들을 돌며 현장서 서비스한다.

로타리오 기계를 설치한 상점들은 판매액의 5%와 당첨 상금액의 2%를 코미션으로 받는다. 다른 복권류보다 코미션이 높은데다 가 고객들의 인기가 높아 1주 1만달러 이상의 매상을 올리는 가게도 여럿 있다고 정씨는 밝혔다.

로타리오 기계를 가진 상점은 온타리오에서만 1,800개소가 된다. 6월부터 시작된 6/49 게임(49개 숫자중 6개를 맞힌다)은 퀘벡주의 로토공사, 서부주의 웨스턴·캐나다복권재단, 동부 해양주들의 아트랜틱복권공사등 4개 회사 합동운영으로 전국에서 실시, 매주 추첨한다.

종전의 6/39 게임은 온타리오에서만 있고 최고 상금기록은 198만달러였다.

로타리오 기계를 가지려는 상점은 은행에 로타리오앞 구좌를 열고, 3천달러를 예약금으로 내며,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관계 서한(Credit letter)을 로터리공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일체의 비용으로 가설한다. (가설및 수강요청은 전화 961-6262).

로터리공사는 로타리오외에 윈타리오, 프로빈셜, 수퍼·로토등 4가지 복권을 운영, 이익금을 체육진흥, 문화사업에 전용한다.

◆정효생씨 (오른쪽) 가 교포 수강생들에게 로타리오기계작동법을 실습시키고 있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37>

殺意斷層 ④

『웬 일이지? 나를 다 만나자 하고…』

허공에 눈을 두고 그가 심드렁하게 물었다. 문자는 그를 만나자고 한 것을 후회했다.

『만나자고 하면 안 되나요?』

볼멘 소리로 물었다.

『안될거야 없지만 갑작스런 일이라서 말이야.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해서…』

『앞으로 자주 만나야 할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녀는 입을 다물고 밑을 내려다보았다.

『집에 무슨 일이 있니?』

허공에서 시선을 거두어 비로소 깊은 눈길로 바라본다. 깡마른 턱이 역광을 받아 유난히 앙상해 보인다. 못잔등이 유태인처럼 휘어있다. 거기다 곱슬머리.

『그 사람하고 싸웠니?』

『……』

『부부싸움 중재라면 난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오빠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번져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문자는 심히 망설였다.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오빠라고 하지만 외간남자와 정을 통해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섣사 이야기한다해도 이 무기력한 오빠가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 해결해줄 수 있다면야 눈 딱 감고 이야기할수 있다. 그러나 오빠에게는 그럴 능력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

말해버릴까… 오빠한테 무슨 수라도…

『걷자. 걸으면서 이야기하자.』

그가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들은 연인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갔다.

어두운 곳마다 남녀가 서로 끌어안고있는 모습이 보였다.

『여긴 한창이구나. 좀 불쌍해 보이는데…』

그가 혼자 중얼거렸다.

『우리나라 연인들은 불쌍해 보인단 말이야. 갈곳도 없는 연인들 잡아서… 겨울에는 춥겠는데… 통금에 쫓겨야되고…』

모퉁이를 돌아갔다. 그녀는 말할수 없었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었다. 오빠한테 창피를 당하는 것이야 괜찮다. 오빠는 비밀을 지켜줄 것이다. 말해보는 거다. 오빠한테 무슨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여간 남자니까.

『오빠……』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는 주춤하다가 계속 걸어갔다.

『오빠…』

『빨리 이야기하고 가자. 늦었는데….』

그의 재촉이 그만 그녀의 입을 틀어막아 버렸다. 그녀는 멈춰서서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리고 그것을 토해내면서 울음섞인 소리로

『오빠… 나 어쩌면 좋아…』

하고 말했다.

『무슨 일인데?』

그가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보고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뛰었다.

『야, 문자야!』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 왔지만 그녀는 그대로 뛰어갔다.

朴 男 그림

"마음이 고와야 미녀"

상금만 $15만, 모델출신

"케런은 속과 겉이 다 아름다운 여성이랍니다."

온타리오주 런던 태생으로 세계를 제패한 미녀 케런·볼드윈(18)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각종 스포츠를 즐기고 서글서글한 성품이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나 내 동생이 세계 최고의 미녀로 뽑힐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그녀의 오빠 브렌트씨는 각지에서 몰려오는 축하전화를 받기에 여념이 없다.

왕관을 머리에 얹고 난 바로 다음날 아침 전화인터뷰에서 "밤새 잠을 못 이루었어요. 정말 믿겨지지 않아요"하고 케런양은 행복에 넘쳐 어쩔줄 모른다.

키 5피트10인치, 체중 119파운드인 케런양은 15살때 이미 모델생활을 시작했었고 작년에는 미스·런던으로 선발돼 수주간 런던의 각종잡지에 커버·걸로 등장했었다.

작년 11월 미스·캐나다로 선발되면서 토론토로 이사온 케런은 "세계 6억인구가 TV로 미스·유니버스대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그다지 떨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막상 마지막 5명의 후보가 추려졌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라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부모와 함께 3주전부터 리마에 온 그녀는 30일까지 미스 유니버스주최측으로 부터 지도를 받은 후 곧장 뉴욕으로 가서 1년간 세계 최고의 미인으로서 스케쥴에 바빠질 것이므로 언제 캐나다에 돌아올지는 기약이 없다.

세계일주여행외에도 그녀가 받은 상품은 현금 $15만, 밍크코트, 다이아몬드등 보석류등.

케런양은 앞으로 계속 뉴욕에 거주하면서 패션스쿨에 다녀 패션방면에서 성공하는 것이 장래의 희망이다.

◆「온」주 런던에서 태어나 미스·런던, 미스·캐나다, 미스·유니버스를 승승장구한 케런·볼드윈. 직업모델답게 포즈가 유연하다.

◆미스·유니버스 케런의 15세때 모습. 장차 세계를 재패할 미녀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듯 자신만만한 표정.

〈독자의 광장〉

슬픈 부모

장 정 숙 (스카보로)

오늘도 비는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공연히 일찌기 없었던 습관으로, 즉 이곳 노인네들처럼 의자를 현관앞에다 내다놓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길을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뭣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뻔한 일이었다.

"여보, 우리도 서서히 노후생각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남편은 대꾸없이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다.

어제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이러저러 손님을 접대하고 집에 돌아온 후의 입맛이라는게, 도토리를 씹은 뒤같이 개운치 않은 기분이다. 근 1년을 두고 얼려도 보고, 야단도 치고, 애원도 하며 딸의 마음을 돌리려 했으나, 결국 일은 이렇게 되고야 만 것이었다.

딸의 결혼식에 참석도 하지 않겠다던 남편이 딸의 팔을 끼고 들어가 백인 목사 주례하에, "누가 이 여자를 give away하느냐?"하는 질문에, "I do."하고 서약을 하고, 딸을 이국남자에게 넘겨주고 돌아온 것이다.

결국 제아무리 완고하게 강한 사람도 자식들 앞에서는 약하였다. 저희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저희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부모가 또 한번 양보한 것이다. 만인 앞에서 저희들의 결혼을 천하에 공개하고 떳떳하게 행세하라는 부모의 배려인 것이다.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야 간단하였다. 어느날 딸의 몸안에서 한국인의 피가 끓을 때, 한국의 것을 찾아 절규하고 몸부림칠 날이 있을 숙명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로 사랑한다고, 이해한다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우겨대는 젊은애들 앞에 부모는 너무나 미약하였다.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민생활의 고립, 어른들이 안계시는 가정, 친구가 없는 학교, 방패역할을 해주는 엄연한 사회가 없는 우리네 이민생활에서 자식과 부모는 번번히 1대1로 맞서야만 했다.

헛된 줄 알면서 이러한 자문을 해보는 것이다. "왜? 무엇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왔는가?"하고--.

우리네 부모는 한이 많았다. 일제하에서 구박받은 설움, 민주 파도기에서 겪은 몸서리나는 비극, 배우지 못한 아쉬움, 공정치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참으로 인간으로서 한 평생을 눌려서 살아온 우리네게 가까운 내 자식들에게서 그나마 소원을 풀어보자던 희망이 이토록 죄스럽단 말인가!

자식들의 앞날을 가로막을 부모는 없다. 그런데 2세는 부모를 거부하고, 한국적인 것을 부정함으로써 백인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줄 착각한다. 무의식중이건 의식중이건, 부모를 배반함으로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 버리는 비극을 범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식들은 너의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잠깐 너에게 맡기신 것이다."

아버지날에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이시다. 우주의 삼라만상,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만, 자식에 대한 미련 때문에 부모는 슬픈 것이다.

몬트리얼 한인야유회

3개교회 합동예배도

(몬트리얼=정판성지국장)몬트리얼 한인회(회장 정회수)는 지난 18일 몬트리얼 근교에 있는 OKA공원에서 한인야유회를 가졌다. 약 250여명의 교민들이 참가한 이 야유회는 어린이, 청·장년 각종게임과 남녀 줄다리기로 진행됐으며 청년대 장년 배구시합에서는 장년팀이 2:1로 승리했다.

행운상 추첨에서는 각지에서 답지한 기념품들로 푸짐했고 행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참가상이 돌아갔다.

이날 야유회는 몬트리얼의 3개 한인교회 합동예배로서 비교인들도 예배에 참석했다.

한인연합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3교회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합동예배는 이은종 순복음교회 목사의 사회, 장로교회의 오기송장로가 기도, 한인연합교회 정세봉장로가 성경낭독, 배한국목사의 설교로 약 30분간 진행됐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 훨씬저렴한 가격
● 빠른 써비스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제1회 교회음악 강좌

본 대학에서는 평신도 여러분들에 교회음악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 1회 교회음악 강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이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82년 8월3일, 10일, 17일, 24일, 31일
매주 화요일 오후 6시~9시50분까지 (5주동안)
◉장 소: 754 INDIAN RD. (오순절장로교회)
◉강좌내용: ▲성악-발성법, 발성연습및 지도(이주연교수 담당)
▲교회음악사-교회음악의 유래및 발달과정 연구(유회자교수 담당)
▲성가대운영론과 실제-성가대운영 방법론및 찬송가 해설(박재훈교수 담당)
◉참가대상: 교회음악에 관심이 있는분, 일반교우, 성가대에 봉사하는 분들.
◉등록일자: 1982년 8월3일 오후5시30분까지
◉회 비: 1인당 $70
◉등 록 처: 754 INDIAN RD. (본 대학 서무과)
◉문의및 연락: 762-1495, 493-8894, 745-7370

1982학년도 미주장로회 신학대학(토론토 캠퍼스)

신·편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하오니 사명있는 많은 분들의 응모있으시기 바랍니다.

과정	과 구 분	자 격	수업연한	취득학위	특 전
학위	교역(신)학석사 (M.Div)	①수세후 2년이상자 ②정규대졸업자, 동등이상자	3	교역(신)학 석사 (M.Div)	①졸업후 총회고시를 거쳐 노회에서 안수한다. ②졸업생전원은 본총회와 모국총회산하에서 활동한다.
	신학사과정 (B.A)	①수세후 1년이상자 ②고졸자 동등이상자	4	문학사 (B.A)	①졸업후 교역학, 기, 교육학과 2년에 편입된다. ②졸업생전원은 본총회산하에서 전도사가 된다.
	교회음악과	①수세후 1년이상자 ②고졸자 동등이상자	4	교회음악학사 B. MUC.	①음악목사코스 ②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교회음악석사	①음악학사 학위소지자 ②수세후 1년 이상자	2	교회음악석사 M.C.M	①음악목사코스 ②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비학위	성서과	학력제한 없음 ①수세후 1년이상자	2	수료증(노회인정)	졸업후 심사하에 본교에 진학할 수 있음.

1) 원서교부, 접수: 본대학교무과(오순절장로교회)
및 시험 장소 754 Indian Rd., Toronto, Ont.
M6P 2E3 전화 : (416)762-1495
2) 원서접수마감일: 1982년 9월6일(월) 오후5시30분
3) 전화문의할 곳: 762-1495, 746-2870, 745-7370, 881-7162, 493-0615
4) 구비서류: 1. 입학원서
2. 최종학교졸업증서및 성적증명서
3. 당회장 추천서
4. 사진 3매 (명함판)
5. 전형료 $50.00 (시험당일 지참)
★시험과목: 성경, 국어, 역사, 일반상식
5) 시험일시: 1982년 9월6일, 오후6시부터
시험장소: 본대학 강의실
6) 합격자발표: 1982년 9월6일 당일발표
7) 수업시간: 월, 화, 목 오후6-10시
8) 등록금: 학위과정 학점당 30불, 비학위과정(성서과) 100불
9) 개교일시: 1982년 9월7일 오후6시(신입생 Orientation)

★본대학 교육기본방침
1. 미주한인장로회총회 헌법에 기준, 교역자 양성과 평신도를 훈련한다.
2. 장로회신학대학(서울 예장통합측)과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형성한다.
3. 소명의식이 투철한 인재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주어 복음사업에 동참케 한다.

★학장자문위원(Consultants)
1. 이종성 박사(장로회 신학대학(서울)학장)
2. Dr. Michael D. Ryan(Prof. of Drew Unv.)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토론토분교장 최 양 선

실협뉴스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TV용 입체안경(3D) 대힛트

협회서 직접주문 접수 · 3~6일

8월17일부터 정기적으로 방영되는 입체 T.V.영화(City-TV Ch.47)를 위한 3-D Video Glasses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소매 99센트에 판매되고 있는 이 플라스틱 입체안경은 8월17일, 9월7일, 9월27일에 방영되는 입체영화를 입체적으로 실감있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된 상품이다.

지난 6월초부터 맥스밀크와 베커밀크등의 체인스토아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3-D안경은 날개가 돋친듯 팔려 현재는 시중에 재고가 동이 날 정도였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상점당 최소한 1,000개 이상은 판매했다는 것이 딜러들의 뒷얘기다. 그간 구입처를 알지못해 애태우는 많은 협회원들로부터 문의가 쇄도, 협회에서는 관계업자들과 상의,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그 주문을 협회에서 받기로 했다.

◉품명: 3D Video Glasses
◉소매가격: 99센트(Window Sign제공)
◉공급가격: 500개미만-72센트, 500개이상-70센트
◉주문기간: 8월3일~6일(4일간)
◉주문처: 협회사무실(533-7923)
★리턴없고 배달하여줌.

연초 소매업자에게 보내는

국세청 경고문

온타리오주의 담배세법에 의하면 연초(cigarettes), 엽초(cut tobacco), 궐연(cigars)의 모든 판매에 대하여 연초세를 징수하게 되어있읍니다. 이 세금은 면허가 있는 도매업자가 이 상품을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때에 징수하고, 소매업자는 다시 손님에게서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허가 없는 도매업자들이 종종 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마치 소매업자에게 싸게 파는 것같이 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위법입니다.

지난해에 국세청에서는 온타리오 연초세법에 의한 면허없이 과세되지 않은 연초를 판매한 6명을 고발조치한바 있고, 그 벌금이 $77,000에 달했읍니다. 그리고 현재 세액으로 수백만불이 관련된 7건이 법정에 공소중에 있읍니다. 최근에 2백만불이 관련된 한 사건에서는 6명이 체포되었읍니다.

면허없는 도매업자에게서 과세안된 연초를 매입하는 소매업자는 특별수사반(Special Investigation Branch)의 법집행강화로 동일한 처벌과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국세청에서는 경고하는 바입니다.

과거에는 소매업자들이 과세안된 연초라든지 면허없는 도매업자임을 모르고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소매업자는 고발조치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연초세를 징수하는 면허있는 도매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소매업자의 책임이 되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유통에 종지부를 찍기위해서 국세청은 과세 안된 연초를 다루는 소매업자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세안된 연초나 엽초를 취급하는 소매업자는 고발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초소매업자는 단순히 탈세범으로서 사회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쓰게 될 뿐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크게 됩니다. 보통 부정연초를 매입함으로써 "카톤"당 50센트의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발각될 경우, 탈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수도 있읍니다.

이미 부정연초를 매입한 소매업자는 국세청내에 자진신고의 구제책이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소매업자가 과세안된 연초를 취급하였음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이나 벌금을 받지않고 그 세액을 국세청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통신(Ministry of Revenue Tax Information Bulletin) 제1권 제2호인 1981년 12월호에 나와있읍니다. 이 사본이 필요하거나 과세안된 연초에 관한 내용을 원하는 소매업자는 아래 장소로 서신 또는 전화하면 됩니다.

Ministry of Revenue
Special Investigation Branch
2nd Floor, 77 Bloor St. W.
Toronto, Ont.
M7A 1X8
전화 (416)965-7767

연초공급업자가 국세청의 연초세 징수자로 지명된 면허있는 도매업자인지 여부를 알고자 하는 소매업자는 아래 장소로 연락 바랍니다.

Ministry of Revenue
Motor Fuels and Tobacco Tax Branch
15th Floor, 77 Bloor St. W.
Toronto, Ont.
M7A 1X8
전화 (416)965-2587

<기 고>

로타리오란?

정 상우(실협뉴스편집장)

주정부 오락성에서 관장하고 있는 복권공사(Ontario Lottery Corporation: 2 Bloor St. West)는 1975년에 설립되어 정부의 복권을 발행하고 상금을 지불하는 제반 업무와 국민복지사업에 기여함을 커다란 목적으로 두고 있다.

현재 약250여명의 본사 전직원과 각 보급소(Distributor)와 각 대리점(Agent)으로 구성하고 있다.

새로운 인기사업중의 하나인 「로타리오」는 3년전 최초로 250대의 로타리오 머신을 불란서로부터 도입, 처음에는 본사 직원으로 하여금 지역별로 Retail Store를 선정하여 직접 찾아가서 이 머신을 설치하도록 사정 사정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다시 말하면 약 백만명의 고객이 이 Game에 참가하기 때문에 이제는 본사에서 직접 Agent를 선별하여 심사하고 있다.

심사하는 방법이나 기준을 알고 싶어 하는 분이 많으나 본사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실협과 로타리오 실무자와의 접촉에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다.

현재까지 온타리오 전역에 약 1900대의 로타리오 머신이 설치되어 있으며, 300여대가 우리 교포가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각 Agent는 모든 제반 사항을 책임져야 하는 임무이다. 여러 종류의 복권은 유가증권이라고 할수 있으며 로타리오 Agent는 이 유가증권을 직접 취급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Training Dept.에서 새 Agent에게는 6시간에 걸쳐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현재 Game의 종류는 「6/39」과 「6/49」 두가지가 있으며 전자는 온타리오 전역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Game이며, 후자는 온타리오, 퀘벡, 마니토바, 브리티쉬·콜롬비아등 4개주에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므로 결국 캐나다 전국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이다.

미국의 16개주에서 이 게임이 진행되고 있으나 다른 주에서도 누구나 쉽게 참가할 수 있는 Game인지 도박인지를 은밀히 심사하고 있다.

복권공사의 메인 콤퓨터는 판매수량, 고장수리, Open, Close, 메세지 전달등 1900개의 머신을 총괄 지시하는 중대한 임무를 가진 정밀한 기계이다. 그러나 각 Agent는 발행한 티켓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복권공사 역시 책임이 없다. 다만 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메인 콤퓨터는 정확하고 세밀한 기계가 돼야한다.

본사와 Agent와의 계약체결은 아주 까다롭게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위반을 할 경우 언제든지 머신을 가져갈 수가 있으나 Agent가 해약을 원하면 30일 이전에 통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앞으로 복권공사에서는 정부 시책의 하나로서 로타리오 사업을 계속 확장할 예산과 계획을 이미 청사진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하니 실협회원들 중에서도 원하면 Agent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곧 올것 같다.

성장하는 우리 실협
성공하는 나의 사업

◆스카보로에 사는 일가족 6명의 여인들이 이번주 열리는 세계 미스·누드대회(THE MISS NUDE WORLD PAGEANT)에서 모두 옷을 벗기로 마음먹었다. 앞줄 왼쪽부터 달린, 미리암, 엘리슨·코폭자매와 친구 메리·스미스. 뒷줄 왼쪽부터 세자매의 조카들인 린·발렌티노와 고모 나딘·블랙웃.매년 열리는 이번 누드대회 개최지는 온타리오의 윈더미어(WINDERMER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 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제2회 한인실업인협회 친선골프대회

일시 : 1982년8월2일(월)오전9시 장소 : Richmond Hill Golf Club 회비 : $35

●시 상

▲Member
Gross Champion
Gross 1, 2, 3, 4, 5등
Net A(89이하) 1, 2, 3, 4, 5등
Net B(90-99) 1, 2, 3, 4, 5등
Net C(100이상) 1, 2, 3, 4, 5등

Nearest to Hole
Hole in One 세계일주항공표 ..... C.P. Air(회원·비회원)
Yellow 6 Florida 왕복항공표 .... 신의상사(회원·비회원)
Yellow 8 Las Vegas 왕복항공표 plus 3박4일숙박 .... Rosen Dairy(회원)
White 2 New York 왕복항공표 plus 3박4일숙박 .... O.K. Bread(회원)
White 5 New York 왕복항공표 York Ice Cream (회원·비회원)

Longest Drive
White 1 Florida 왕복항공표 .... 서울여행사(회원)
White 4 Homma Driver ..... 무나미트로피(회원·비회원)
White 8 Powerbilt Driver ...... 다우스꽃집(회원·비회원)

Most Honest

▲Guest
Gross Champion Gross 1, 2, 3, 4, 5등 Net 1, 2, 3, 4, 5등
Nearest to Hole
Hole in One 세계일주항공표 .... (회원·비회원)
Yellow 6 Florida 왕복항공표 .... (회원·비회원)
White 5 New York 왕복항공표 .... (회원·비회원)
Longest Drive
White 4 Homma Driver .... (회원·비회원)
White 8 Powerbilt Driver .... (회원·비회원)

◆Tee-Off시간에 불편한 점이 있으셔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진행상 당일현장에서의 신청은 사절하오니 양해바랍니다.
◆Tee-Off시간 30분전에 본부석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Tee-off Time Schedule

1	9.00	서동준	김연오	서동현	최용도
2	9.07	차원봉	최이락	송주희	김정세
3	9.14	정희철	유기훈	함금상	차영신
4	9.21	김형도	이근호	이경선	오현표
5	9.28	이건영	김칠용	최상철	이병문
6	9.35	송종남	김남헌	최무원	김태신
7	9.42	김흥랑	이호영	송완일	이재성
8	9.49	안 덕	김창완	장무웅	이형재
9	9.56	김성진	손정현	이신년	이양구
10	10.03	고광현	문옥섭	김풍수	서인현
11	10.10	김형호	심태섭	차선행	안규정
12	10.17	한강국	김진형	조영철	이동환
13	10.24	임철원	신용목	김성규	박남희
14	10.31	김난선	김용기	송종보	함효상
15	10.38	정판풍	한천석	김은하	M. Caird
16	10.45	이형인	최동주	조흥래	(Neilson)
17	10.52	김영진	김우영	정상우	한용식
18	10.59	진경호	김덕수	W Delfino	(coca cola)
19	11.06	박영철	윤여경	유영감(Y)	박노욱
20	11.13	정길수	고광남	이기훈	김창갑
21	11.20	이광민	함태호	원창호	이영민
22	11.27	정용주	장인수	최창수	이무교
23	11.34	김진수	최호영	이영헌	정창헌
24	11.41	엄주면	김만구	최상수	정 용
25	11.48	박종선	심재환	이창복	김현모
26	11.55	김영대	홍진표	이상철	박상남
27	12.02	M. Farb	P. Pappas	G. McGrail	B. Heffer
28	12.09	이상훈	최충락	이준식	김태정
29	12.16	박인순	조한철	문인식	장순채
30	12.23	윤재용	엄주익	강경하	차인규
31	12.30	F. Farrow	J. Came	P. Duyn	N. Charbursky
23	12.37	B. Brick	(Sun)	J. Hudson	M. Moffat
33	12.44	백운산	이춘수	T. Brush	P. Nadella
34	12.51	조의문	박경택	이종원	R. Ward
35	12.58	이수신	강찬영	한철환	R. Levine
36	1.05	이원순	김종조	박 J im	김남수
37	1.12	김정곤	서준경	M. Benadiba	B. Reier
38	1.19	최영식	김구명	함덕상	박경덕
39	1.26	김천만	전기석	박광철	강화연
40	1.33	허종수	구연원	배이상	김사만
41	1.40	유영감(R)	P. Tulloch	김이열	R. Bredshaw
42	1.47	윤철중	양길용	배경락	D. Jenning
43	1.54	김기수	하청남	차자윤	이학현
44	2.01	김인환	조기연	이상봉	천용기
45	2.08	함태산	이재민	조동환	

●Door Prizes

1등	Cash Register(회원에 한함)	$1,200	Skyway 김인환
2등	장미적금1회 불입증	$250	외환은행
3등	Micro Oven(회원에 한함)	$300	김태진이사장
4-5등	재봉틀 2대(회원에 한함)	$500	차선겸회장
6등	10 Speed 일제자전거	$250	Humpty Dumpty
7등	신용적금1회 불입증($3,000 18개월)	$154.44	신용조합
8등		$200	강찬영변호사
9등		$200	조기연
10등	Golf Bag(Large)		이병권
11등	Stereo Receiver Record Player		Silverwood
12등	Answering Service System		Panasonic
13-22등	Kal Kan Cat Food 100상자(10명)(회원에 한함)	$850	연합상사 김현모
23등	상품구입권	$100	Loeb
24등	Golf Cart	$100	배경락
25-27등	Golf Putter(3개)		이춘수
28등	Golf Bag(Large)	$100	박경택
29-35등	Golf Bag(small),Golf Cover(5개)	$100	유영감(Y)
36등	Golf Bag		General Bakery
37등	Tape Recorder		Metro News
38등			Sealtest
39등			Intercity News
40-41등	Radio 2대	$150	Frito-Lay
42등		$150	Dominion Smallware
43등		$150	Coca Cola
44등	Smoke Alarm	$150	Halton Caird Ins.
45등		$150	U. B. A.
46등	Clock Radio etc.	$150	Hostess
47등	Golf Shoes	$100	City Sign 홍진표
48등		$100	이인용
49등	Portable Cooler, Tee 150개	$100	Canada Dry
50등	한국일보 1년구독권		한국일보사
51등	민중신문 1년구독권		민중신문사
52등	코리언저널 1년구독권		코리언저널사
53등	Golf Bag(small)	$50	서춘경이사
54등	Golf Bag(small)	$50	서동준이사
55-59등	Golf우산 5개		이학현
60-62등	Golf Putter 3개	$150	심태섭
63-67등	Golf Cover 5개	$70	이상철이사
68등	Golf Bag	$100	한천석이사
69등	Golf Bag(small)	$70	함덕상이사
	Golf Ball	$50	김풍수총무
	Golf Ball	$50	장경하
	Golf Ball	$50	이홍규
	Golf Towel 150개		이건영
	Sun Squeeze 15상자		Sun Squeeze
	Blue Jay Tickets etc.		Toronto Sun,
		$100	유기훈
		$50	이 휘
	Video Tape Rent 10개		한국비데오 손병헌
	Table Alarm Clock		장순채

주최 :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實名예금秘密 立法보장

特措法등에 明文化
누설자엔 體刑까지

정부는 實名去來制가 시행되더라도 예금, 적금, 주식등 금융자산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위해 예금과 비밀보장에관한 사항을 특별조치법과 은행법에 규정하고 이를위반, 누설하는 경우에는 體刑까지 가할수있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실명거래제가 시행되어도기존 가명예금은 자유로이 인출할수 있도록하고 실명화를 유도하기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에 부과키로한5%과징금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實名制돼도 旣假名예금引出 자유롭게
出處不明자금 5%과징금은 면제키로

24일 관계당국이 마련한 金融資産實名化에관한 特別措置法(가칭) 시안은 예금자의 비밀을 보장하기위해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에관련된 사항은 ①자기자신의 요청이있을때 ②여신관리를 목적으로 ③법관의 영장이있을때 ④國稅부과를 위한과세자료로 요청할때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예금·주식·채권등 금융자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수없으며 만일은행원, 세무공무원, 증권회사직원등 관계자가 개인의 금융자산에 관한정보를 누설했을때는 3년이하의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정부는 과거의 사회풍토에 비추어볼때 실명거래제의 성패는 예금자의 비밀보장여하에 달려있다고 보고 과세목적이외에는 재산비밀을 가능한한 철저하게 보장키로 했다.

특별조치법은 또 실명거래에 관한 모든 절차를 규정키로하고 특히 7·3조치때거액 가명예금의 자금인출은금지키로 한 방침을 바꾸어 예금인출은 명의나 금액의규모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할 방침이다. 또 일정한도 이상의 출처불명자금에 대해서는 실명화할때 5%의 과징금을부과키로 했으나 실명화를 자유롭게 하기위해서는 5%의 과징금을 면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많아 과징금을 면제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

實名制 비밀保障法
民正, 9월國會제출

民正黨은 實名去來制 실시에있어 과세목적이외에는 개인의 預·積金에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위한 은행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陳懿鍾정책위의장은 24일 『7·3조치로 현행 預·積金 비밀보장에관한 법률이 폐기됨에따라 과세목적이외의 預·積金비밀을 보장하기위해현행 은행법을 개정, 관계조항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말하고 『6·28및 7·3조치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등 각종稅法및 금융관계법개정을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 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6·28조치로 法人稅法이 대폭인하됨에 따라 稅收결함폭을 줄이기위해 일부품목에 특혜를 주고있는 租稅감면규제법을 대폭보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말했다.

陳의장은 『6·28및7·3조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공청회등을통해 폭넓게 국민여론을 수집하여 신중히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民正黨은 그밖의 보완책으로▲예금이자의 종합과세는 일정액이상의 高額이자소득자에 한정하고 ▲자금출처조사는 자금도피를 방지하기위해 꼭필요한 경우에만 행사하며▲예금이자에대해 差等稅率을 적용하는 방안등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實名制」·전면實施촉구
民韓 補完策

民韓黨은 24일 7·3經濟조치에대한 補完策을 발표, 預金·證券등에 대한 實名制실시를 정부방침대로 내년7월1일부터 하되 『假名의 존속없이 實名制를 全面실시하고 이시기까지 스스로 實名化하지않는 경우는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않는 범위내에서 모든制裁조치를 취할것』을 촉구했다.

이 補完策은 政府案이 내년7월1일부터 實名制를 실시하되 86년6월30일까지는 假名의 존속을 허용하고 假名의 경우 예금이자소득의50%중과세, 過徵金5%부과, 자금출처조사등의 조건을 달고있는것과 달리 實名制의전면실시를 주장했다.

民韓黨은 또 大型巨額假名예금을 경기활성화및 국민경제건전화에 기여토록 유도하기위해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엄격히 선정할 것을 주장, 정부가 제시한 자금출처 면제대상6개중▲은행주식매입▲國公債매입▲중화학공업출자를 제외하고▲서민용賃貸주택건설자금▲系列기업관리기업인수에 사용되는 자금▲은행금등 3가지를 면제대상에추가할 것을 제의했다.

이 補完策은 정부가 밝힌 종합소득세 合算실시는 세무당국의 電算처리시설과 능력이 미비하고 稅制上의 불편으로 다수의 少額자금소지자들이 예금, 증권참여를 기피할우려가 있다고 지적, 3~4년의 검토준비기간을 갖고 그안엔 利子와 配當소득의 분리과세를 계속 실시토록 권고했다.

이補完策은 또 현재의 假名예금액 13兆원중 약8兆원이 소수의 不條理한 蓄財로 조성된 大型예금으로 추계되고있다고 지적, 『그러나 이자금이 법률의 테두리안에서 소유되고 있는만큼 그권리는 합법하게 보호되어야 할것이므로 預·積金비밀보장법을 폐지하지말고 實名制경우에도 예금자의 비밀보장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社會漫評

日閣僚 잇단妄言…각계聲討

"韓日합방 侵略아니다"
日교과서 是非는 內政간섭"
日 文部·國土廳장관發言 커다란 파문

【東京24日＝宋孝彬특파원】 마쓰노·유끼야스(松野幸泰) 일본국토청장관은 23일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일본 새 검정교과서의 역사적사실 왜곡문제와 관련, 일본의 韓日合邦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해 韓日간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다.

마쓰노장관은 이날 각의가 끝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역사교과서에도 오류가있는 것같다』면서『예컨대 韓日합방의 경우 한국에서는 일본이 침략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당시 한국의 국내정세등도 있어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알수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일본으로서도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말한것으로 아사히(朝日)신문은 보도했다.

마쓰노장관은 또 이날 각의에 앞서 오가와·헤이지(小川平二) 文部相과 만나 『한국으로부터 교과서의 내용을 고치라는 요구가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으나 이는 경우에 따라 내정간섭이될수도있는만큼 그같은 요구에는 의연한태도로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련의 접촉이 있고난뒤 오가와文部相은 23일 『교과서검정은 內政문제』라고 말하고『검정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임하고 있으며 이같은 태도는 과거나 현재나 조금도 변하지 않고있다. 한국이나 중공의 비판은 가당치않다』고 비난했다.

오가와文部相은 이날 마끼에다(槇枝元文) 일본교원노조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검정교과서가 史實을 왜곡, 편향기술함으로써 한국, 중공으로부터 비난을 받고있는데 정부의 개선책을 바란다』는 마끼에다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가와文部相은 그러나 교과서검정에 대한 한국및 중공의 비판은『내정간섭』이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자신은 전혀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일본 신문들은 24일 오가와 文部相이 「침략」을 「진출」등으로 뜯어고친 검정교과서에 대해 정당성을주장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중공으로부터 더큰 반발이 예상되며 국회등 일본국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것으로 보인다고 크게 보도했다.

日外務省、友好균열 우려

【東京24日＝聯合】일본외무성은 최근 사회과교과서의 역사記述부분을 놓고 한국 중공등이 강한 비판을 하고있는것과 관련, 이 문제가 양국민의 감정을 자극하여 우호관계에 균열이 생기지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日本의 도오쿄(東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日교과서 歪曲 中共、非難재개

【東京23日＝聯合】중공은 22일 일본文部省이 교과서를 사실과 왜곡되게 개정한데대한 비난을 재개하고 이는 72년의 日·中共공동 성명과 78년의 양국평화우호조약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의적歪曲에 底意있다"
이機會 對日관계 재검토해야

日本교과서에 對韓관계역사가 歪曲수록된데대해 이를 비난한 한국민의 감정과여론이 일고있는가운데 日本의 마쓰노·유끼야스(松野幸泰)국토청장관과 오가와(小川平二)文部相이 잇달아 그들의 對韓侵略을 合理化시키는 妄言을하자 국내 각계인사들은 『과거 日本제국주의 根性의 발로』라고 흥분하면서 對日 強硬策을 촉구하고 나섰다.

日本측이 지난역사를 歪曲하고 또 그러한 엉뚱한 주장을 합리적이라고 어거지를 쓰는 日本 각료들의 잇단 妄言에대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계 각층에서는 『韓·日合邦이 침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妄言에는 경악을 금할수없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엄연한역사를 歪曲하려는 그들의 일련의言動에는 무슨 底意가 있는게 분명하며 앞으로 그들의 對韓태도에 각별한경계심을 가져야할것』이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일부인사들은 최근 日本측에서 對韓經協규모를 한국측이 받아들일수없는 내용을 제시한것과 때를같이해서 妄言을 되풀이하는것은 양국문제를 고의적으로 해치려는그들의 底意를 짐작케하는것이며 이에따라 한국의 對日관계도 전면 재검토되어야할것이라고 강경태도를 보였다.

2世들의 편견우려

▲崔永禧씨(史學者·前國史편찬위원장)＝마쓰노·유끼야스(松野幸泰)국토청장관의 망언은 1백년전인 1875년 운양호사건이 났을때 日本데라시마(寺島)외무경이 明治정부의 계획적인 침략행위를 은폐시키기위해 주일외국공사들에게 침략미화발언을 한것과 똑같은 발상에서 나왔다고 보여진다.

이번 일본국사교과서 파문을 보고 느낀점은 自國의 역사교과서를 허위로 싣는일이 자라나는 2세들에게「편견」을 심어주어서 앞으로 韓日관계를 저해시키는 무서운 싹이된다는 사실이다.

日本역사학자들도 알고있겠지만 운양호사건은 당시운양함장 이노우에·야시까(井上馨)의 수기에서 명백히 침략의사가 드러나고 3·1운동때의 폭정도 조선총독부자료나 日本정부가 보관하고있는 외교문서만 훑어봐도 명약관화하게 나타난다.

해방37년이 되는 지금까지 치부를미화시켜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것은 순환을계속할것이 아니라 韓日역사학자가만나서 그 시비를 가리는 회의를 갖는것도 문제해결의 한 관건이라고 본다.

文明國의 良心의심

▲李台燮(국회상공위원장)＝세계의 경제대국을 自處하는 日本이 엄연한 역사를 歪曲하여 2세국민교육을 시키겠다는 발상은 이해할수 없다. 현대文明국으로서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수없다. 그러한 양식으로 韓日友好를 아무리 부르짖어본들누가 믿을수 있겠는가.

日本人의 大悟覺醒을 촉구할 뿐이다. 더구나 日本측은 최근 對韓經協을 한국측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액수를 제시한것과 같은 시기에 이러한 妄言을 계속 던지는 것은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악화시키려는 고의가숨어 있다고 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帝國主義근성 表出

▲林在正의원(국회文公委위원·民韓)＝한마디로 日本제국주의 根性의 表出이라고 보고싶다. 최근 日本의 憲法개정논의와도 무관하지않은것같다. 우리도 이제 각오를 새로이 할때가온것같다. 특히 安保면에서 만일의 경우 日本의 힘을빌어 공산주의를 막겠다는 오류를 犯해서는 안될것이다.

日 對韓觀 시정을

▲金翰宣의원(국회保社委위원·국민)＝고또도시오(後藤利夫)駐韓日本공사가 23일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수없는 經協案을 제시한것과 마찬가지로 日本정부가 엄연한 역사사실을歪曲한교과서를 검인한것은 시기적으로 보아 우리국민의 감정을흥분시키려는 計略으로밖에 보이지않아 분노를 느낀다.

힘만이 善隣뒷받침

▲崔一男씨(소설가)＝日本국민이 갖고있는 2중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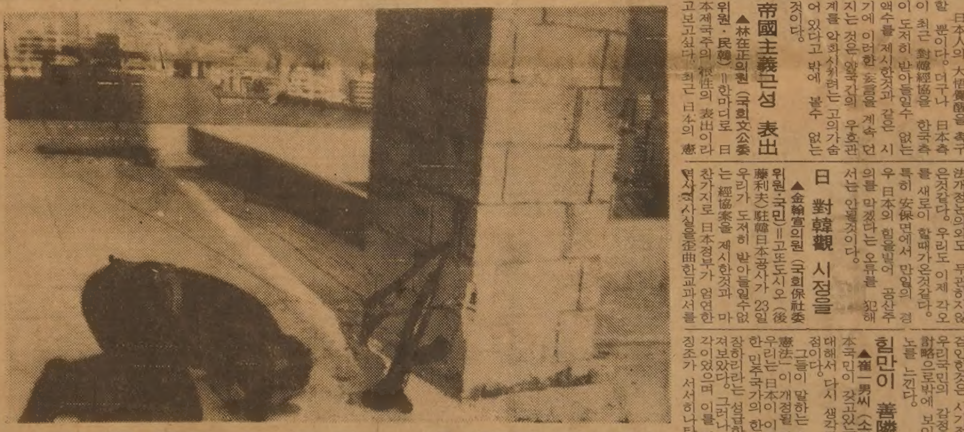
그들이 말하는 소위「平和憲法」이 개정될 당시만해도 우리는 日本이 이제는 온순한 민주국가의 한 모델로 등장하리라는 섣부른 기대도가져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징조가 서서히 나타나고있다.

韓·日議員聯 시정촉구

韓日議員聯盟은 일본검인정교과서의 한국침략사 歪曲과 이를 옹호하는 일부 일본각료들의 발언이 韓日관계에 惡영향을 미치는것으로 간주, 日韓의원연맹측과의 협의를통해 시정을 촉구할방침이다.

韓日의원연맹은 이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취합하여이를 토대로 우리측입장을 빠르면 내주초 일본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것으로 24일 전해졌다.

韓日의원연맹의 李載濚한국측회장과 李相翊간사장은 이와관련, 오는26일 民正黨 관계자들과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경비중 禮拜보는「팔」兵士 서부 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전사 한명이 23일 이스라엘전투기의 공습에 대비, 한건물 옥상에서 경비를 서던중 回敎聖地 메카를 향해 절을하며 예배하고있다. 【베이루트23日UPI電送＝聯合】

地平線

湖南지방에 큰비가 내렸다. 가뭄으로 가슴탔던 농민에게 매우 단비다. 慶南과 全南北을 제외한 다른지역선은 아직도 빗줄기를 더 기다려야할 처지다. 하지만 이번비로 그한 마음졸였던 농민들의 시름은 좀 놓아졌을게다. 좍좍 빗줄기가 내려 우리 大地를 시원스럽게 하면 우리의 답답한 마음도 한결 시원해 질것 같다.

▼농민들의 마음이 가벼워야 그나라 政治에 대한 民心도 훈훈해진다는 말이있다. 古來로 농업을 으뜸으로 삼아온 東洋사회에만 이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神이 選民을 갖고자 했다면 大地를 경작하는者야말로 神의 選民이다』고 토머스·제퍼슨은 말했다. 民心이 天心이란 뜻일게다. 제퍼슨은 미국建國에 공헌한 사람이다. 그는 또 『獨立自營의 농민으로 구성되는 미국은 도덕적으로도 건전하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이라고 생각했다.

▼工業化가 시작되면서 미국사람들은 그것이 유럽에서처럼 빈부의차를 빚어내고 인간의정신을 퇴폐시킬것이라고 우려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工業化가 유럽에서 빚어낸 그 不道德만큼 미국사회를 더럽히지는 않았다. 미국의 그광활한 大地의 存在가 工業의 不道德性을 鈍化시켰기때문이다. 大地는 工業化의 惡에 대한 安全瓣의 역할을했다. 미국사람들은 미국땅이 넓어 自然과 工業이 유럽에서처럼 不調和를 가져오지않는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강조하기에이르렀다.

▼미국이 세계최대의 工業國이란것은 누구라도 알고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최대의 농업국이란것은 잊어버리기쉽다. 애퍼래치아에서 로키산맥에 이르는 大平原은 세계에서도 보기드문 비옥한 땅이다. 밀, 보리, 쌀, 감자, 콩, 땅콩, 담배, 면화가 각각 그適地에서 생산된다. 미국은 콩, 면화의 세계최대 수출국이다. 또 과일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州를 중심으로 생산된다. 미국생활에서 매력있는것중의 하나가 싸고 신선한 밀크, 오린지주스, 과일 그리고 진짜 꿀을 먹을수있는 점이다.

▼세계최대의 농업국이지만 농업인구는 2억2천만 총인구의 4%에 불과하다. 하지만 天心이 되는 4%의 그 民心을 얻는것이 대통령당선에 크게 작용된다. 비옥한 땅과 기계화에 의한 높은 생산성이 미국농업의특징일것이다. 미국에서는 설령 가뭄이 오더라도 대개 전국적인것이 못되고 지역적일 경우가 많다. 이런 미국농업에도 고민은 있다. 우리들이 부러워 해야할 과잉생산이다. 올해도 미국의 곡물생산은 대풍작이 예상되나 유럽국가들의 비축증대등, 수요감퇴로 농민들은 풍년을 자축하지 못할것같다는 보도다. 농업부국의 한 현상이라고나할까.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전문인의 집 브랜든 종합 운동구점

✣ 유니폼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저희는 30여가지의 유니폼을 구비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 품질보장 · 저렴한 가격.

7월 스페셜 SALE
⊙ 골프채 · 자전거 · 트로피
⊙ 어린이 축구화(퓨마) $21.98
⊙ 축구볼(수공으로 된 가죽제품) $27.98

adidas
Wilson
C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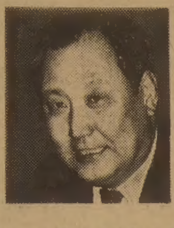
맞춤전문:
유니폼(단체및 개인)
트로피 및 상패

337 BLOOR ST. W.
(블루아×세인조지)
☎ 598-3732
이건영

아침에

改惡이 웬말인가

日교과서 檢定…여기 證人이 있는데…



千寬宇 〈史學者·한국일보고문〉

A兄, 日本의 敎科書檢定문제로 논의가 비등하고있는 요즘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중학교 시절의 한班 친구였던 K와 여러해째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새삼 돌이켜 보았읍니다.

우리 학년에서 유일하게 創氏改名을 안했던 K는 매일 교무실에 불려가서는 닦달을 당하고 울상이되어 돌아오곤 했읍니다. 집에서는 절대로 못하겠다하고 학교에서는 절대로 시키겠다 하니, 가운데에 낀 K소년이 배겨날 도리가 있었겠읍니까. 그 무서운 強要속에서도 끝내 창씨개명을 안하고 버틴 人士들도 적지않았던 것을 훨씬뒤에 알고 그런 이들은 일단은 덮어놓고 존경해도 좋다는 생각을 한 일이 있읍니다.

『조선어와 조선문자의 사용이 禁止되었다』는 일본 교과서의 원문이 『조선어와 함께 일본어가 公用語로서 사용되었다』로 수정을 당했다고 합니다. 『고등 보통학교』 생도로 입학을했던 우리가 어느해 4월에 『중학교』 생도로 校帽가 바뀌면서 그때까지도 매주 한두 시간은 있었던 『조선어 及 한문』 과목이 없어졌을때, 철없는 마음에도 이 빠진 것 같은 서운함이 있었던 것이 어제 일 같습니다. 그뒤로 평소에 학우들끼리 『조선어』 會話를 하다가 들켜도 모질게 당했던 일은 이루 헤아릴정도가 아니었지요. 뜻있는 분들이 母國語를 지키다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고생을 한 것이 이 얼마 후 였읍니다.

『神社 참배도 강요당했다』는 원문은 『신사참배도 장려되었다』로 고쳐졌다고 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문을 닫아야 했던 학교들이 있었고 殉死를한 목사가 여럿이었던것을 내가 안것 역시 훨씬 뒤였읍니다만, 우리들 중학생은 나팔樂隊를 선두로 교련용 38식 小銃을 메고 그 고장 신사에 참배를 해야했던 것이 한달에도 두세번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回想을 곁들여 들춰내자면 限이 없는 이런 일들은 나나 兄만의 일이었겠읍니까. 지금 50 이상된 이들이면 누구나가 눈에 선하게 그려낼수 있는 體驗들입니다. 글쎄요. 그소위 皇民化정책 곧 민족 말살정책들이 법규의 형식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던지 일일이 들춰보지는 못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려가 아닌 강요이었던것을 證言할 사람은 아직 우리나라에 수도없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읍니다.

× ×

A兄, 언젠가 나는 우리 古代史를 다루면서 이런말을 적은 일이 있읍니다. ─지금 일본에서 간행되고 있는 저명한 歷史書들을 보아도, 漢四郡이 한반도의 거의 全域을 덮고 任那日本府가 버젓했다는 식의 舊說들이 그대로 踏襲되어 圖版으로까지 표시가 되어있다. 사실이 그랬다면 우리들 도리가 없겠지만, 사실이 그렇지않았다는것이 밝혀져있는 이상 그 是正을 요구하는것은 被害者로서 당연하지않은가. 제나라 역사가 소중하기는 피차에 다름이 없으니 말이다─하는 것이었읍니다.

이번 일본교과서 검정의 全貌를 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편이 은근히 걱정했던 古代史쪽은 별로 들려오는 것이없고 그대신 丙子開港, 토지조사사업, 3·1운동, 關東大震 때의 학살, 그리고 일본 強占末期의 皇民化정책과 人力강제동원등 近代─現代史에 관한 부분들이 특히 改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中日전쟁 관계로도 일본군이 南京점령때 20만 이상의 대학살을 저지른 사건을 흐지부지해 놓았다니 中共이 화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닌성 싶습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에서 특히 한국관계 서술이 改惡되어가고 있다는 말은 3~4년전부터 小學校·中學校 용의 개편 때부터 간간이 들려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高等學校 용에 이르러서는 한반도 내지 중국대륙에 대한 과거의 侵略을 合理化하려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있읍니다.

일본에서 이런 교육방침이 점차 浮刻되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에 연유하는 것인지, 일본의 국제적 지위나 현재의 한일관계와 관련시켜 누구나 짐작이 가는 점이 있을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점은 여기서 건드리지 않기로 합시다. 또 우리가 愛國을 하려하듯이 일본인 역시 애국을 하려는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가지, 眞實을 말하자는 것입니다. 학문이요 교육이요 하는 문제이기에 더우기 眞實을 말하자는 것입니다.

일본의 실무당국은 이번 검정이 『어디까지나 학문연구의 성과에 입각해서 통설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실시한 것』이라 했고, 엊그제 23일에는 급기야 일본 閣議가 이 문제를 다루고 위의 입장을 공식으로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韓日合邦은 침략이 아니었다』는 웃지못할 寸劇마저 터져나왔읍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본強占末期의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事例를들어 증언할 사람이 아직도 얼마든지 있다고했읍니다. 그이전의 開港이나 土地調査事業같은것도 이번 일본교과서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점은 『학문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읍니다. 더구나 이번 교과서 수정은 일본의 전문학자·교육자들이 쓴 原本을 일본의 정부당국이 添削을 한것입니다. 어느 역사적사실에있어 眞實이 어느것이냐고할때, 역시 전문학자·교육자의 말을 믿는것이 어느나라에서나 상식이 아니겠읍니까.

A兄, 일이 참 고약하게되어가고있읍니다. 이번 교과서는 내년4월부터 사용할 『일본사』·『세계사』·『현대사회』 등 여러가지 敎本인데 그검정은 일단 끝이나 벌써 새책이 나온모양입니다. 앞으로라도 일본의 良識있는 여론에 힘입어 우리편의 抗議가 먹혀들어간다면 또 모르되,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일이 어떻게될까요.

나는 근래에 『일제 36년은 되도록 잊어버리자』는 말을 더러 한일이 있읍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계속 외고있느니 그보다는 自力에 의한 앞으로의 발돋움쪽으로 액센트를 두어야 하겠다는 뜻이었읍니다. 그러나 일본의 청소년이 배울 교과서가 이렇게 진실과 멀어진다면, 나뿐이아닌 누구나가 일제36년 잊어버리기가 더욱 어렵게 될것같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그릇 가르친다면 한국에선들 일본을 바르게 가르치고 싶어지겠읍니까. 한국사람이 그런 狹量은 아니라 하더라도 감정이야 어찌하겠읍니까.

『不幸했던過去』란 일본이 한일관계 이야기할때즐겨쓰는표현이었읍니다. 그 불행을 씻기는 고사하고, 그릇 가르침을 받은 두 나라의 청소년들이 갈수록 誤解와 거기서 빚어지는 輕蔑·憎惡를 더해간다면 韓日關係는 자손대대어디로가자는 것일까요. 그러나, 일이 고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나라 백성에게나 愛國心이 있읍니다. 그러나 빗나간 애국심이 眞實을 가려놓으면 서로 不幸밖에 올것이 없을듯합니다.

교과서 歪曲 波紋

日서 "內政간섭" "自省論" 엇갈려

外務省 한국·中共 마찰없게 協力요청

文務省 "史實에 의한것 是正할수없다"

3大 日刊紙도 "잘못된부분은 고쳐야" 主張

한국과 중공이 일제히 史實왜곡투성이의 일본교과서를 비판하고 나선데 대해 일본의 여론은 지금 『내정간섭이다』라는 반론과 『틀린부분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自省論으로 엇갈리기 시작했다.

외교적인 충돌에앞서 한국과 중공의 언론들이 일제히 왜곡사실에대해 비난의 화살을 퍼붓자 일본외무성은 대륙 「진출」 논리를 펴는데 그치지않고 3·1운동을 「폭동」으로 기술함으로써 관련상대국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주무부서인文部省에 공식으로 전달, 이로인해 對日감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념할것을 건의했다.

특히외무성은韓日양국이 1년가까이 끌어온 경제협력문제를 타결할 막바지교섭을 벌이고있는 미묘한관계이며 중공과는 국교정상화 10주년을맞아 스즈끼수상이 9월 중공을방문할계획으로있어 韓日, 日中共관계가 악화되지않도록 문부성이 협력해줄것을 바라고 있다. 또한 韓日, 日中共관계의 외교적문제를 일으키지 않기위해 韓日우호연맹과 日·中共 우호단체들을 통해 일본교과서검정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학자들간의 교류와 연구로써 시정하는 길을 찾을수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있다.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찌등 일본의 유력지들은 연일 외신면에 한국과 중공의 신문에 편파적이고왜곡투성이의 일본 검정교과서에 대한 비판여론을 싣고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잘못된 부분은 상호국민적이해아래 시정돼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특히 東京신문은 검정문제로 인해 한국과 중공이 지적한 왜곡사실들을 2페이지에 걸쳐 일일이 열거, 특집보도했다.

일본의 교원노조 마끼에다위원장은 23일 오가와文部相을 방문, 검정교과서문제에대해 왜곡된史實을 바로잡을 것을 건의하고 교과서 검정을 문부성으로부터 독립한 위원회에서 검열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대해 오가와문부상은 『교과서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공의 시비는 정당하지 못하며 역사적 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검정을 실시했다』고 말하고 『교과서검정문제는 內政문제』라고 일축했다.

오가와문부상은 검정교과서제도의 개혁문제에 대해서는 『중등교육심의회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하여 교과서검정을 위한 독립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60만노조원을 이끌고 있는 혁신계인 日敎組는 교과서문제로 한국과 중공이 비판하는 여세를 몰아 문부성으로부터 교과서 검정권을 뺏으려 하고있다.

마끼에다위원장과 오가와문부상과의 면담이 끝난뒤 이들은 『교과서검정문제는 內政문제』라는 오가와문부상의 발언을 둘러싸고 입씨름을 벌였다.

오가와문부상은 『마끼에다위원장이 내가 하지도않은 말을 기자들에게 발표함으로써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거짓말장이인마끼에다위원장과는 두번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쏘아붙였다.

이에대해 마끼에다위원장은 오가와문부상이 『내정문제』라고 발언한것도 진실이며 사실은 내가 『일본의 중국대륙에로의 침략을 진출로 고치고 3·1운동을 폭동으로 왜곡, 한국과 중공으로부터 비난이 일어 외교적인 문제가 됐다』고 말한데 대해 오가와문부상은 『외교문제라고 말하지만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내정간섭」을 「내정문제」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검정문제를 둘러싸고 文部相과 日敎組위원장사이의 갈등은 이처럼 감정문제로까지 발전했다.

문부상이 「내정문제」 발언을 부인한것과는 대조적으로 마쓰노국토청장관은 『한국이 일본교과서의 기술내용에대해 이러쿵 저러쿵 주문을붙이고있다는 신문보도가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내정간섭이된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역사교과서에도 잘못이 있는가의 여부도 조사해봐야 할것』이라고 트집을 잡았다.

한국신문들이 일본교과서의 史實왜곡에대해 비판하고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공의 新華社통신과 人民日報도 중공교육학회회장·日·中共우호협회부회장등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 일본교과서가 중국대륙에의 침략사실을 왜곡, 기술하는것은 중공인민에 대한 모독이며 분노를 느낀다고 항의했다.

한국과 중공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문부성은 『역사적 자료가 없다』 『교과서 검정은 내정문제다』란는 구실을 내세워 현재대로 밀고나갈 방침이다.

【東京24日=宋孝彬특파원】

泰에 武器醜聞

首相보좌관 美製거래 介入

【방콕23日AP=聯合】 타이軍당국에 의해 프렘·틴술라논다수상의 한 측근보좌관이 관련된것으로 밝혀진 약5백만달러상당의 美製무기 불법거래스캔들이 타이정가를 발칵뒤집어놓고 있다.

이 스캔들은 전에 국방장관으로서 프렘수상의 측근보좌관 역할을 했던 사왕·빈요소장이 이날 軍당국에의해 구속되고 무기불법거래를 교사한 것으로 전해진 비바트·비사누비롤소령이 국외로 탈출함으로써 터져나왔다.

軍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타이국방성명의로 총4백71만7천7백달러에 달하는 4천5백정의 M16소총과 5백정의 M203수류탄발사기를 美코네티컷州에 있는 화기제조회사 콜트社에 주문,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이 화기의 실제주문자인 제3국으로 보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지금까지 이 스캔들에 관계된 일을 다뤄온 타이軍장교들은 23일 불법으로 주문한 무기들이 싱가포르에서 전부 압수됐음을 시사했으나 보르네오에서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측하고있다.

신문보도들은 군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이 무기들이 中東에 있는 某국가의 어떤 혁명단체 또는 정부에 보내질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메아리

여행의 즐거움 가운데 쇼핑의 재미를 빼놓을 수 없을것 같다. 검소한 선물은 인정의 표시며 전달이다. 특히 해외여행일땐 빈손으로 돌아 오기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니 공항 면세상점과 비행기안의 면세품은 불티가 난다. 지난 한햇동안 세계의 여행자들은 각국 공항의 면세점이나 비행기안에서 50억달러란는 엄청난 돈을 뿌렸다.

이중 90%가 술, 담배, 화장품 사기에 쓰여졌다고 스웨덴에서 나온 보고서가 밝혔다. 이런 수익은 여행자에게도 보람을 준다. 운임이 싸지는것이다.

공항매점의 수입이 없다면 영국의 히드로공항을 떠나는 여행자들은 한사람이 적어도 6달러는 더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면세상품 거래로 수입을 크게 올린것은 유럽쪽이다. 아시아 지역도 그를 따르고 있다.

서울을 비롯 동경, 홍콩, 대북, 마닐라, 싱가포르, 방콕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가장 많이 애용하는 손님은 일본인들이라고 한다.

일본 단체관광객이 몰리는 비행장엔 으레 양주와 미국담배가 인기다. 여행자들의 손엔 거의

노 비자

예외 없이 술과 담배보따리가 들려 있음을 보게 된다. 김포공항에서도 일본 관광객이 몰릴때면 물건이 없어 못팔 지경이다.

작년과 금년들어 우리나라를 찾아 오는 외국 관광객은 계속 늘고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가는 돈은 한사람당 2백달러에서 1천2백달러 정도다. 잘 팔리는 선물은 인삼·보석종류로 약 40·5%를 차지한다.

요즘은 유럽과 동남아등지에서 오는 여행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나 여전히 일본관광객이 전체의 45%가량 된다. 지난 4월말 일본의 연휴땐 하루 1천6백명이 들어왔다.

당국은 일본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비자없이 입국하여 전국어디서나 5일동안 지낼수 있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지역은 이미 실시되어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노·비자」로 통하는 동남아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생각해볼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일본이 노·비자의 문을 열지않는한 互惠의 원칙을 깬다는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옳겠다. 관광수입은 좋으나 「자존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석방되는 폴란드 政治犯 폴란드계엄후 바르샤바근처의 한수용소에 구금돼 있다가 군정당국의계엄완화조치에 따라 23일 석방되는 일단의 정치범들을 가족과 기자들이 맞이하고 있다. 【바르샤바23日AP聯=聯合】

美, 舌戰중지 희망

레이건 "蘇가스管건설 마찰 안말려들어"

【워싱턴·파리23日AP·聯合=聯合】 레이건 美 대통령은23일 시베리아 횡단가스관 건설계획을 둘러싸고 미국과 서구 맹방들간에 일고있는 舌戰을 중지하기를 원하고있으며 이 가스관건설과 관련한 미국의 對蘇禁輸조처를 위반하는 서구회사들에 대해 법적 보복조처를 강구하기에앞서 美상무성의 보고서를 기다리고있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세인트 루이스에서 1박한뒤 美공군1호기편으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도중 가진 機上기자회견에서 그의 對蘇경제제재조처에 대한 프랑스의반발을 둘러싸고 美·佛간의 마찰에 말려들지는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 시베리아가스관공사와 관련한 그의 對蘇禁輸조처를 서구회사들이 준수토록 하기위해 法的힘을 빌 작정이냐는 기자질문에 『전반적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기다릴것』이라고 답변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시베리아 가스관건설공사를 위해 소련에 미국이 개발한 기술및 장비들이 판매되지않게끔 법적 조처를 강구하도록 美상무성에 지시한바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보다앞서 22일 TV회견에서 미국의 對蘇禁輸조처에 따르지않기로한 프랑스의 결정에 처음으로 공식 논평하는 가운데 西歐국가들이 시베리아가스관건설을 위해 제공하려는 對蘇지원은 외환부족에 크게 허덕이고있는 소련경제에 매년 1백억~1백20억달러를 流入시켜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가스관공사문제와 관련하여 西方동맹국들간에 일고있는 논란에도 불구, 이문제가 여전히 『가족내의 문제』란는점에 그와 헬무트·슈미트 西獨수상이 의견을같이했다고 덧붙였다.

印에 F16機등 販賣용의

美 스토슬次官

【워싱턴UPI23=聯合】 월터·스토슬미국무차관은 미국의 對파키스탄무기공급이 인도아대륙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레이건미행정부가 인도에도 F16기를 포함한 군사장비를 판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스토슬차관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인디라·간디인도수상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22일 워싱턴에서 인도언론대표들에게 브리핑하는 가운데 그같이 말했다.

美, PLO접촉 失敗

회담계획깨져

【워싱턴23日AP=聯合】 레이건美행정부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간의 직접접촉방안을 마련하기위한 일련의 신중한 회담이 결렬됐다고 워싱턴에서 레바논저명인사가 23일 밝혔다.

中立 레바논운동의 로제·에데씨는 미국과 PLO가 PLO대원들의 西베이루트 철수 문제협상과 관련하여 공식접촉에 가까운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는데 미국의한 中東문제전문가는 그의 말을 대부분 확인했다.

실패로 끝난 이 일련의 회담에서 PLO대표들과 美관리들은 직접적인 대화가 아니라 중개자를통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에데씨와 다른 소식통들은 전했다.

日長崎에 豪雨

62명死亡·2백70명失踪

【東京24日AP·共同=聯合】 일본남부의 나가사끼(長崎)縣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수는 24일 상오현재까지 최소한 62명으로 늘어났다고 나가사끼경찰이 발표했다. 경찰은 또 2백70명이 실종되고 98명이 매몰된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방위청은 복구및 구조활동을 지원하기위해 피해지역에 자위대원 2백59명을 불도저등 각종 장비와 함께 파견했다.

共同통신은 모두 6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보도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나가사끼市 북쪽 20㎞지점의 긴까이(琴海)市에는 23일하오 한시간동안 무려1백53㎜의 호우가쏟아졌는데 日本기상청은 이강우량이 1시간동안 내린 강우량으로는 日本사상 두번째기록이라고말했다.

나가사끼市에는 23일하오 3시간동안에 걸쳐 3백15㎜의 비가 내려 시가지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다.

이, 이틀째 猛爆

베이루트 일원

【베이루트·예루살렘23日AP·UPI=聯合】 이스라엘전폭기들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西베이루트결전을 막기위해 새로운 외교노력을 기울이고있는 가운데 23일 베이루트일원에대한 연이틀째 공습을감행, PLO목표에 맹폭을 가했다.

PLO의 와파통신과 레바논국영방송은 이스라엘전폭기들이 베이루트남부의 국제공항과 아랍대학, 우자이의 PLO진지, 여러곳의 팔레스타인난민수용소, 람렛·엘·바이다해안고속도로등지에무차별폭격을 가해 다수의 건물이 파괴되고 52~56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軍대변인은 이스라엘전폭기들의 폭격목표가 베이루트국제공항과 西베이루트의 사브라지역근처에 포진한 PLO의 탱크및 砲진지였다면서 이스라엘전폭기의 공습은 23일 하오8시(한국시간)에 개시돼 1시간만에 끝났다고 발표했다.

海外토픽

◇忙中閑의 미스코리아 리마의 미스유니버스大會에 참가한 미스코리아 박선희양이 최종결선에 앞선 23일 리허설도중 미스스위스 지네트·린켄하일양과 忙中閑을 즐기며 정담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리마(페루) 23日AP聯=聯合】

45㎏얼음덩이 落下

★코피마시던 주부 날벼락

미국 플로리다주 스튜어트에 사는 에디드·터너부인은 22일 주방에서 코피를 마시고 있던중 45㎏가량되는 얼음덩어리가 하늘무너지는 소리를 내면서 지붕을 뚫고 떨어지는 바람에 혼비백산했으나 가족중 다친사람이 아무도없어 안도의 한숨.

얼음덩어리는 터너부인의 집 지붕에 직경 60㎝가량의 구멍을내고 거실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는데 마연방항공관리들은 사고당시 스튜어트지역상공에 2대의 항공기가 비행중이었음을 알아내고, 이들은 항공기의 음료수통이나 같은날 케이프·카내베랄에서 발사된후 폭발한 미사일에서 이얼음덩이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판단, 다각적인 원인규명에 나섰다고. 【스튜어트=UPI】

위대한人物에 교황

★미스유니버스 美女들투표

로마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최근 82년 미스유니버스대회에 참가중인 각국미녀 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기투표결과, 최다표인 22표를 얻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정됐다고.

한편 테레사 수녀가 8표, 레이건 미 대통령이 6표를 얻어 각각 인기 2·3위를 기록.

이같은 사실은 리마의 아마우타극장에서 지난22일 개막된 미스 유니버스대회에서 공개됐는데 미니 유니버스는 오는26일 선정될 예정. 【리마=AP】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맛 사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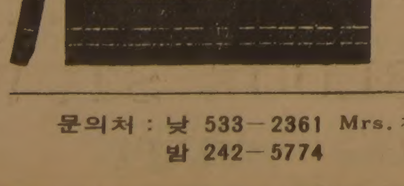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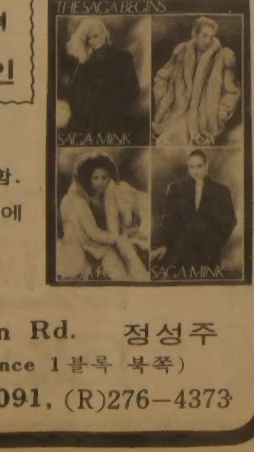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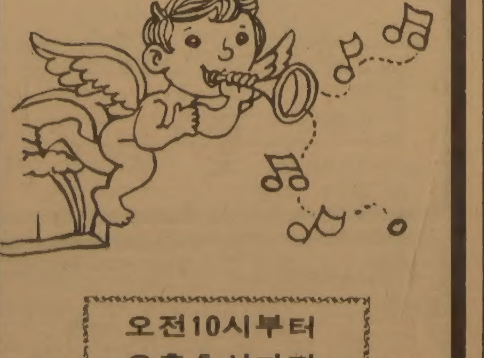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R)276—4373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 국 일 보 광 고 부

한국일보

특집판

取材팀

◇특집부 李梓昇 부장대우 李光榮 차장 鄭逸和 기자 文昌幸 기자

◇경제부 趙源永 차장대우 兪曉錫 기자

◇사회부 李鍾九 기자

◇정치부 盧翰煥 기자

◇사진부 韓 隆 기자 鄭在斗 기자

구독신청 533 - 2361

구독신청은 (416) 533·2361

무진장의 寶庫…지구村의 「제7大陸」에 꿈을 건다

땅은 滿員…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바다는 무한한 자원의 寶庫, 인류의 꿈이 서린 新大陸… 인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땅은 이제 만원. 45억의 가족을 거느린 지구는 벌써부터 식량과 에너지등 주요 자원난에 공해와 核의 공포까지 겹쳐 비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관심은 바다로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 특히 각종 자원이 달리는 우리나라는 바다에 거는 기대가 어느나라보다 크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에 대해 아는것이 너무 없다. 여름은 바다와 가까와 지는 철. 인류의 꿈이 서린 지구의 마지막 남은 寶庫—제7대륙—바다의 중요성과 개발현황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총점검해 보았다.

저만큼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본 지구는 땅덩어리이기보다는 하나의 파란 물덩어리(水球)였다. 실제로 바다는 표면적이 육지의 2·4배이고 부피는 11배에 이른다. 그래서 산과 들을 모두 깎아 바다를 메운다면 땅은 온통 바다3㎞ 깊숙이 잠기고 만다.

지구는 우리가 아는대로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물을 가진별이다. 지구에 풍부한 물—바다가 없었다면 생명체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생명의 기원처럼 바다는 생물의 성장과 번식, 분포, 이동, 진화의 본고장이다. 바다의 생산력은 땅을 크게 앞지른다. 바다에서 가장 큰동물은 고래. 큰것은 1백70톤이나 나간다. 이는 땅에서 제일크다고하는 코끼리의 25배, 황소의 1백50배에 이른다. 땅에서 코끼리가 다자라려면 30년이 걸린다. 하지만 바다의 고래는 3~4년이면 거뜬하다.

현재 바다에서 퍼 올리는 세계총어획량은 대략 8천만톤규모. 그러나 바다를 잘 관리만 하면 현 어획고의 20~30배를 거뜬히 얻어 낼수 있다. 이는 5백억의 지구가족을 먹여 살릴수 있는 식량이다.

얼마전까지 바다는 수산자원과 물자를 나르는 海運 그리고 군사적인 면의 이용을 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바다만큼 각종 자원이 풍부한 곳은 없다. 80년말 현재 전세계 석유 생산량의 25%정도를 바다 밑에서 얻고 있다. 해저에서 얻는 석유는 80년대말쯤 가면 땅의 생산량을 앞지를것으로 본다.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녹여저장하는 지구의 거대한 물질저장소이다. 바닷물 속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물질이 녹아 있다. 바닷물 1입방㎞속에는 대략 3천9백만톤의 각종 광물질이 녹아 있는데 이중엔 나트륨을 비롯, 마그네슘, 우라늄, 포타슘, 코발트, 금, 은, 등등 유용광물이 대량 포함되어 있다.

이들 광물질을 바다에서 모두 뽑아낸다면 地面을 지금보다 1백50m나 높일수 있는 양이다. 현재 미국은 하루 약1백50톤의 마그네슘을 바닷물에서 얻고 있다. 또 멀지않아 핵연료인 우라늄을 바닷물에서 뽑아낼 계획이다.

◇挑戰받는 海底 『바다!』하면 모두들 수평선과 그 너머의 먼 세계만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넓고넓은 바다 밑에는 인류의 마지막 寶庫라는 바다밑이 있다. 이 寶庫를 향한 도전은 바다밑을 헤치는 스킨, 스쿠버·다이버, 그리고 해저 탐사, 해양과학에서 출발한다. 【獨島해저 10m에서 잡은 보고의현장=韓隆기자】

海洋개발 연구 어디까지 왔나

바닷물은 달리는 땅위의 淡水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수있다. 땅위의 담수는 전체 水資源의 불과 1%에 지나지 않는다.

바닷물 속엔 미래 에너지源인 重水素가 들어 있다. 그래서 核融合爐가 실용화되는 날엔 바닷물이 몽땅 오늘의 석유와같이 쓰일 전망이다. 또 바닷물을 이루고 있는 거의 무한정의 水素는 酸素와 결합하며 탈때 높은 열을 내놓으면서 깨끗한 물을 만들기때문에 다시없는 무공해 에너지源으로 손꼽히고 있다.

바닷물은 또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潮力發電, 위와 아래쪽 해수의 온도차를 이용한 溫度差發電, 난류와 한류를 이용하는 海流發電, 파도를 이용하는 波力發電으로 인류의 에너지문제를 덜어준다. 프랑스는 이미 30만㎾급의 潮力發電所를 건설, 이용하고있다. 우리나라도 加露林灣에 潮力發電所를 세울계획이다.

바다속 海底광물 또한 방대하다. 바다밑 땅속엔 지상의 모든 광물이 들어있지만 특히 수심2백m이내의 대륙붕에서 砂金과 砂鐵 다이어먼드등 20여종의 광물이, 深海底에선 망간덩어리(團塊)가 주목되고있다. 이중 망간29·8%, 철4·8%, 구리1·2%, 니켈1·4%, 코발트0·2%로 이루어진 망간단괴는 세계가 군침을 삼키는 노다지. 이들 망간단괴의 주요부존지역은 태평양의 하와이남쪽과 멕시코서쪽해역 일대. 이들 태평양 해저에는 자그마치 1조7천억여톤의 망간단괴가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이들 망간단괴는 구리 88억톤 니켈1백68억톤 코발트 50억톤 망간 4억톤에 이른다고. 그리고 이가운데 1백10억톤의 망간과 1억1천5백만톤의 코발트, 6억5천만톤의 니켈, 5억2천만톤의 구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경제성이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한정된 땅, 제한된 자원, 그래서 지상의 석유는 앞으로 30년쯤후 고갈되고 이보다 앞서 금이 9년, 구리가 21년쯤후 바닥이 난다. 뒤를이어 알루미늄이 31년, 망간 46년, 천연가스 50년, 니켈 53년, 코발트가 60년쯤후 역시 한계를 드러낸다는 미래학자들의 전망이다.

바다는 식량, 에너지, 광물자원 이외에도 바다 농장, 바다 목장, 해상공장, 인공섬, 수중주택과 호텔, 해상發電, 유류저장소등 생활공간으로 크게 이용할수있다. 그래서 땅위의 비좁은 공간난을 해결하는 길이된다.

세계가 요즘 해양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은 여기에 있다.

사람이 바다에 관심을 쏟기시작한 것은 인류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이미 5천년전인 고대바빌로니아와 미노아문명시대부터 나타나고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해양연구의 선구자로 꼽힌다.

3천년전 그리스인들은 지중해와흑해를 포함하는 원반형의 세계지도를 제작했고 이미 2천5백년전 유리상자로된 잠수정을 만들어 침략해 오는 적의 배를 감시하고 격침시키는데 사용했다고 헤로도투스는 기록하고 있다. 기원 3백년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중해 연안의해양生物相을 조사, 1백50여종의 魚貝類를 분류해냈다. 또 알렉산더대왕은 유리항아리를 타고바다속에 들어가 해양생물을 관찰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과학적인 최초의 해양조사가 이루어 지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해양생물상을 조사한 대략 2천년이 지난 1872년부터. 영국이 그해챌린저호를 이용, 바다속 탐험에 들어간것. 박물학자 톰슨경과 지질학자 뮤리교수는 5년동안 챌린저호를 타고 4천4백여종의 바다밑생물을 채집하는등 해양물리와 화학, 생물, 지질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해양개발이 큰 진전을 보게된것은 2차대전이후 현대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電子분야의 기술이 급격히 발전을 보면서다.

해양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일은 배디스케이프(Bathyscaphe)라 불리는 深海潛水艇의 개발로 이를 이용한 바다의 最深部를 탐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1월23일 도널드·왈시와 작·피컬드는 美해군 잠수정 트리에스트호를 타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곳으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 1만1천m 깊이까지 잠수하는데 성공했다. 놀라운 사실은 1천1백기압의엄청난 압력을 지탱해야하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물고기가 살고있다는 사실을 확인한것.

重水素 에너지化 앞날밝아
우리도 國家次元서 投資를

현재 해양개발분야에서 앞서가고있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서독, 영국 캐나다 소련 일본등이 꼽힌다.

미국은 50년대초 이미 해양과학의 기초를 정립하고 60년대 경제와 군사적인 개발목표를 설정, 기술개발을서둘러 왔다. 70년대엔 대규모개발계획을 마련, 정부와 민간합동으로 해양개발을 강력히 추진했다. 해양지질분야에서는 68년시작한 深海試錐계획(DSDP)을 계속중이고 국제해양탐사 10개년계획으로 해저지질, 지각활동, 해양기상, 해양화학, 해류등에 관한 각종 상세한 자료를 수집했다. 해양물리분야에서는 해수유동의 요인이 되는 渦流에대한 조사(POLYGON)를 영국 소련 공동으로 실시했다. 지역과 계절에 따른 해수의 정확한 성분을 알아내기위해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의 3백개 해역에서 바닷물을 채취, 분석하는가하면 深海底 미생물의 생태와 기능을 알아내기위해 조사연구사업을계속펴고있다.

프랑스는 해저탐사, 바다주택, 해저석유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프랑스는 61년 이미 바다밑 1만1천m까지 들어 갈수있는 잠수조사선 알키메데스호를 건조, 海中거주실험을 하고있다. 프랑스는 현재 67년 설립한 국립해양개발센터(CNEXO)가 주축이되어 모든 해양개발계획을 마련,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독, 영국, 캐나다, 소련, 일본의 해양개발노력도 이들 해양선진국에 못지 않게 활발하다.

하지만 우리의 실정은 너무나 보잘것 없다. 69년12월 과학기술처가 「해양조사연구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하나의 계획으로 그쳤고 현재의 해양개발활동도 농수산부, 동자부, 건설부, 교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등 12개 관련部處와 산하기관에서 분야별로 단편적인 조사와 연구, 개발사업을 펴고 있을뿐 아직 해양개발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의와 조정을 추진할 기관도 없다. 그래서 부서간의 업무가 서로 유리된채 멋대로 이루 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관련개발투자는 국가예산의 불과 0·046%선. 선진국의 0·15%에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를 총투자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내지 수백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고있다.

시설과 장비면에서는 더욱 보잘것이 없다. 우리나라 유일의 海洋연구소가 연구소 아닌 일반건물에 세들어있고 해양과학기술발전의 기본장비인 조사선, 잠수장비, 水理모형실험槽등을 제대로 갖추지못한 상태이다. 현재 30척의 해양 조사선을 보유하고있으나 대부분 노후된 소형선. 그래서 기초조사 마저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다. 해양개발에 앞서 주변해역의 해저지형, 지질, 해류, 조석, 파랑, 수온, 생물등 해양환경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 있어야한다. 그러나이들도 단편적일뿐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맨주먹으로 시작, 불과 몇년만에 세계제2위의 造船國이자 10위권내의 수산국으로 부상했다. 남해와 서해에선 석유를찾는 시추사업도 펴고있다. 서해안의 심한 潮力현상은 유용광물을 選別분리하는작용을 해서 바다와 만나는 漢江과 錦江해역 일대엔 높은순도의 砂金이, 서해 島嶼의 암석은 철분을 다량함유한 화강암으로 되어있어 티탄鐵이나 砂鐵이 넓게 널려있을것으로 보고있다.

우리나라도 이들 해양자원개발을위한 종합적인 국가정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李光榮기자〉〈도움말=▲李秉暾 釜山水産大학장▲曹圭張 한국動力資源연구소 해양탐사실장▲許亨澤 한국科學技術院부설 海洋연구소소장〉

壁에 부딪친 「海洋法」

貧國서 마련한 천국제법… 富國반대로
채택되면 한국 遠洋어업 제한 우려도

세계의 『없는나라』들이 유엔무대를 통해얻고 3년동안의 産苦끝에 내어놓은 海洋法이 『있는나라』의 이탈로 출범하기도전에 절름발이가 되었다.

지난 4월30일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참가국1백52개국가운데찬성1백30, 반대4, 기권17표로 채택된 海洋法협약은 오는12월60개국이상이 서명하면 1년뒤인 83년12월부터 발효하게된다.

그러나 海洋法협약은 채택때부터 미국, 서독, 영국, 프랑스등 서방선진국과 소련등 東歐圈이반대내지 기권, 출발부터 『없는자』와 『있는자』가 갈라설수있는 위험성을 갖고있었다.

예상대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7월초 『심해저광물자원의 개발을 너무 엄격히 제한하고있다』는 것과 『값비싼 해양기술의 전수는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海洋法협약에 조인하지 않겠다고 공표, 南北의 균열은 표면화되었다.

미국은 海洋法협약을 이처럼 거부하는동시에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등 다른선진국들과 별도로 심해저자원공동개발협정을 추진하고있다. 『있는자』끼리 주인이 따로있지않은 심해해저자원을 같이 독점개발하여 나누어 갖자는것이다.

지금까지의 개략적인 추산에 따르면 수심3천m내지 6천m의 심해해저에는 약1천7백50억톤으로 추산되는 니켈, 구리, 코발트, 망간등 주요전략광물이 매장되어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금액으로 따져 1조억달러상당.

유엔의 『없는자』의 그룹인 77그룹이 주동이 되어 추진해왔던 海洋法은 심해저 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선언, 심해해저자원의 모든개발활동을 국제기구의 관할아래에두고 수익을 공동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바꿔말해서 심해해저 자원의 소유권을 국제화하려고 시도한것이었다.

『인류의 공동유산』개념은 『없는자』들의 소망이나 『있는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空念佛이 되고 결과적으로 해양질서가 二元化되는 사태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렇다고 海洋法이 완전히 休紙조각이 될것같지는 않다.

『있는자』들이 떨어져 나간다해도 海洋法협약은 예정된 스케줄대로 추진되어 갈 것같다. 이 협약이 지난4월30일 1백30표의 압도적 다수로 채택된 만큼 오는12월 조인회의에서 발효에 필요한 60개국이상의 서명을 받을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해양법의 주요내용가운데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있는것은▲領海▲접속수역▲경제수역▲대륙붕등 국가관할권수역의 확대와 연안국의 해상오염규제권및 通航權의 규정이다.

領海12마일은 우리나라도 이미 시행해 온것이므로 별다른 의미가 없겠으나 지금까지 다수의 국가들이 관행으로 실시해온 경제수역과 대륙붕 2백마일이 공인됨으로써 인접국인 일본·중공등과 대륙붕경계수역획정문제를 협의할 계제가 마련되었다. 이 문제는 雙務的인것이므로 상대국이 먼저 움직임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로서는 일단 바다의 새로운 질서체제에 적응할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대륙붕지역이 2백마일에서 3백50마일로 확대할수있게되어있어 遠洋어업의 조업지역이 그만큼 축소될지 모를 우려가 있다. 지난 70년대이후 세계연안국들이 너나할것없이 배타적 주권수역을 3백마일로 적용, 우리 遠洋업계는 타격을 받아왔던 것이다.

세계적으로보아 국가관할수역의 확대는 인접국내지 對岸國사이에 관할수역의 중복에서오는 분쟁의 소지를 그만큼 넓혀놓았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의 원칙이 되어온 육지 연장설이나 等距離線등에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대륙붕개념을 수심 2백m이하라는 수심기준은 완전히 사멸되었다.

분쟁의 소지는 넓혀놓으면서 분쟁을 풀어갈수있는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못했다. 『당사국의 협의』에의해『평화적으로해결할것』을 규정하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경우 구속력있는 중재를 받도록했다. 이러한 규정은 해양법의 성격상 어쩔수 없는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다.

해양법협약의 기초를 닦았던 77그룹이 그들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 바다차지에만 급급했던것같다.

한편 해상오염규제권은 깨끗한바다를 위해 필요불가결하지만 유조선등 국적선증가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얻는것보다 부담하는것이 더 클것같고 通航權은 안보차원에서 우려되기는하나 互惠的이므로 문제될것이 없다. 【李梓昇기자】

해양調査史

69년 資源개발위해 海洋지질硏 설치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과학적인 海圖가 작성된것은 1867년1월 美해군함정 워추셋(Wachusett)에 의해서다. 워추셋는 大同江항해를 위해 그해 이 일대의 물길이를 측정 「大同江附近」이란 이름의 海圖를 출간했다. 이어 1908년12월 大韓帝國이 東·西·南海 일대 48개 해역에서 潮汐자료를 수집, 최초의 「韓國水路誌」를 내놓았다. 또일본이 오우라는 1914년과 1932년 한국과 일본 근해의 潮汐差를 분석, 潮汐圖를 작성했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6월부터 10여개의 수산조합에 정기적인 해양관측을 위촉했으며 3년후인 1918년에는 본격적인 조사선(62톤)을 만들어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중앙 수산시험장을 설립, 해양관측업무를 통합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관측사업은 바닷물의 염도측정과 해류의 유속및 유향(流向)측정이었다. 1928년에 이르러서는 전동측심기를 동원, 1천m까지의 수심을 측정하게 되었고 29년부터는 해수중의 산소량과 수소이온농도, 수온등을 측정 36년에는 「조선해양편람」과 「조선근해 평년海況圖」를 간행했다.

광복후인 45년부터 51년까지는 암흑기.

53년8월 해군본부에 수로국이 발족되면서부터 수로측량, 해도간행, 水路誌등의 발간업무가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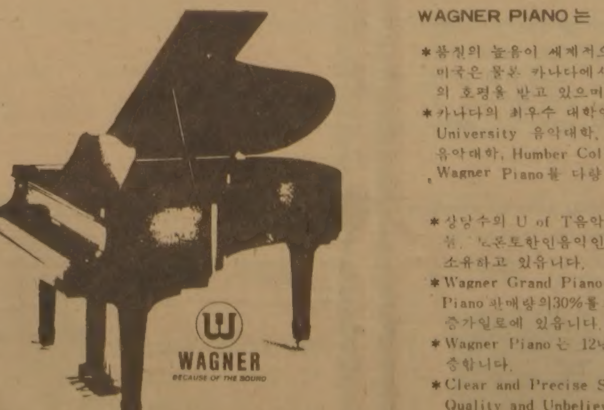
이와 동시에 木浦에 檢潮所가 설립되어 밀물과 썰물을 관측하기 시작, 진해·부산·여수·속초·소흑산도·울릉도에도 같은 기관이생겨 63년부터는 潮汐의 예보활동을 개시했다.

63년 중앙수산시험장이 수산진흥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해양관측및 조사업무는 그런대로 틀을 갖추기 시작, 월별수온및 염도의 평균치와 평균분포도를 수록한 「한국해양편람」을 간행했다. 67년부터는 항만오염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울산만·진해만·광양만·부산만·마산만·영일만·인천항등지에서 정기적으로 수질오탁조사를 개시했고, 69년에는 지질광물조사소(현 동력자원연구소)에 해양물리탐사및 해양지질조사를위한 연구실이 설치되어 해양자원개발의 첫걸음을 떼었다.

서울하우스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짬뽕 · 냉면 / 짜장면 · 잡탕밥 전문
615 BLOOR ST. W. ※일요일은 휴업
☎ : 532-0602 김 신우

IMMIGRATION CONSULTANTS
이민에 관한 상담환영
— 모든 스폰서쉽 경우
— 모든 종류의 비자관계
— 재판받기전 출정
— 이민국에 가기전 상담
— 미국·캐나다에 있는 투자나 회사에 독립고용 관계
※ 더이상의 문의는 ☎ : 291-9590
ZAIDI& ASSOCIATES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 는
*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6·25축소판 巨濟포로수용소 영구보존된다

「戰爭의 傷痕」을 산 敎材로

慶南道, 5개년보존계획 수립

【巨濟이동록자부=文昌宰기자】 6·25전쟁의 유물인 巨濟포로수용소가 반공전시관을 겸한 전쟁유적지로 개발, 영구보존된다.

◇巨濟島포로수용소장 도드장군의 집무실내벽에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말로만 듣던 당시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놨다. 오른쪽위 반월모양은 PX건물벽. 【巨濟島에서 鄭在斗기자찍음】

巨濟포로수용소라면 40대이상의 6·25세대에게는 낯익은 이름이지만 그이후의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낯설다.

경남도와 巨濟군은 민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의 축소판격인 巨濟포로수용소가 날로 황폐화되고 몇개남지않은 건물의 잔해마저 없어지는것을 막고 후세들에게 반공사상을 고취해주기위해 巨濟포로수용소를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위해 경남도는 국방부, 문공부, 교통부등 관계기관과 협조, 「巨濟포로수용소 5개년 보존사업계획」을 수립중이다.

보존사업의 골격은 현재의 유적을 영구보존하는 보호대책과 6·25기념 종합전시장 건설로 돼있다.

포로수용소에는 당초 60여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30여년이 지나는동안 아무도 손을보지않아 모두 헐렸고 외벽만 덩그러니 겨우 30여동뿐이어서 이를보존키로한것.

한편 수용소자리에는 전평2백20평규모의 종합전시장을 건립, 반공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시장에는 당시 수용소장이었던 도드(Francis·T·Dodd) 준장의 유품을 인수받고 당시 수용포로들과 경비병들의 복장, 관계사진, 슬라이드, 영화필름등을 수집 전시하게된다.

당국이 도드준장 유가족의 협조를받아 유품을 입수키로 한것은 그가 수용중이던 포로들에게 납치됐던 역사적사실을 강조하기 위한것.

後世 「反共道場」 활용

60棟중 30棟만 헐벗은채 남아

◇포로들에게 납치됐던 도드준장.

스토리

巨濟포로수용소는 당시 소장이던 도드준장이 공산포로들에게 납치당할만큼 좌·우익싸움이 치열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은 50년11월29일 경남巨濟郡 新縣邑, 延草面, 東部面일대의 15개마을(1천2백헥타르)에 수용소를 차렸다. 수용포로는 북괴군13만명, 중공군2만명등 15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51년7월 판문점회담에서 포로교환문제가 거론되자 북괴는 전인민군총좌 李學九와 전황해도 당부위원장 朴尙鉉등을 위장 귀순, 수용소에 침투시켰다.

이들은 수용소에서 「해방동맹」이란 공산당조직을 강화했고 이에 대항, 그해8월에는 「대한반공연맹」이 창립됐다. 이처럼 수용소내에서 포로들이 남북으로 갈리자 날낭없이 폭동이 일어났고 51년9월17일밤에는 반공청년 포로3백여명이 학살당했다.

그뒤 유엔군이 포로들에게 남북자유선택권을 주기로 하고 개인면담을 했다. 두 반공청년들까지 못하게된 북괴포로들은 52년5월7일, 76수용소앞에서 도드준장과 면담중 폭력으로 그를 납치했었다.

당시所長 유품등 진열

종합展示館설치키로

도드준장이 집무하던 수용소장실은 지금新縣읍 古縣중학교운영에 지장이 없어진채 폐허로 남아있다. 자연석으로 쌓고 틈새에 시멘트를 발라 메운 벽이 남아있는 소장실내벽에는 古縣중학교학생들이 그린 벽화가 당시상황을생생히 말해주고있다.

4개의 벽면에는 무장한 포로들이 폭력으로 도드준장을 납치하는 장면, 납치후 포로들이 막사앞에서 데모를 벌이는 장면, 경비병들이 포로들을 설득하는 장면등이 실감나게 표현돼있다.

소장실 옆 10m지점에는 경비본부요원들을 위한 PX겸 무도장의 반원형 벽과 콘크리트 무대가 남아있으며 무너져내린 벽엔에는 잡초가 무성하게자라고 있다.

그밖에 남아있는유적은 경비본부, 장교집무실, 경비막사, 보급창, 토치카, 페치카, CID막사, 법무부장실, 탄약고, 소방소등 30개건물의 벽면들.

수용소건물이 이토록 폐허가된 것은 그동안 당국과 주민들이 무관심했던 탓이기도 하지만, 최근 급격히 불어닥친 巨濟島개발붐으로 더욱가속화되었다.

新縣邑폭주에는 인근 고현·玉浦에 大宇조선소가 들어서면서 부터 흥청대기 시작한 巨濟島의 개발붐이 수용소 유적지를 급속도로 잠식하기 시작한것이다.

당시 古縣里에 살았다는 李敬一씨(67)는 민족의 비극을 길이 증언해줄 수용소 유적이 보존된다니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將校후보 大學生들에 人氣

서울大등 우수卒業生 몰려

陸軍2期 단기사관후보생 최고 27對1경쟁

司試등 考試합격22명·碩士학위자 43명뽑혀

육해공군의 장교후보에 우수한 대학졸업생들이 몰려들고있다. 24일 소위로 임관된 육군제2기 단기사관후보생의 경우 병과에따라 최고 27대1의 경쟁을 보였으며 사법시험합격자를 포함한 22명의 고시합격자가 포함돼있다.

육군제3사관학교에 의하면 제2기 단기사관후보생으로 서울대(46명) 고려대(24명) 연세대(29명) 등 명문대출신이 대거 선발되었으며 사법시험합격자 3명과 기술행정고시합격자 4명, 행정및 외무고시합격자 15명도 헌병·부관등병과에 지원합격했으며 석사학위소지자도 43명이나 된다는것.

군관계자는 단기사관 후보생에 이처럼 우수한 인력이 많이 지원한것은 복무기간이 사병과같은 3년으로 기왕군복무를 할바엔 일반병보다는 장교가되어 지휘 통솔력을 길러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유익한경험을 얻으려는 의욕과 3년복무이후 적성여부에 따라 복무를 연장할 수도있어 불황으로 취업난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안전한직업을 가질수있는 실리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학사장교후보생들은 자기의 전공과목과 유사한 병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있는데 제2기 후보생의경우, 사회과학계열 졸업생이 몰려든 헌병병과의경우 27대1의 심한 경쟁률을 보였으며 그밖에 부관(18대1) 경리(11대1)등 행정병과와 기술계열의 박공포병(13대1) 과포병(5대1)등이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국군의 일선병사들이 대부분 고졸이상으로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장교의 학력수준도 상대적으로 우위가 돼야한다는 필요성에서 모든 장교의 임관기준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한다는방침을 세워놓고있다.

제2期단기士官校 후보생任官式열려

82년도 육군제2기단기사관후보생(학사장교) ○○○명의 임관식이 24일상오 육군3사관학교 충성연병장에서 李基百 육군참모차장을비롯한 내외빈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임관식에서 崔壽日소위(25·서울대)가 참모총장상, 金周洙소위(24·한양대)가 학교장상을받았다.

海軍사관후보생도

해군73차 사관후보생 임관식이 24일상오 해군2사관학교 충무연병장에서 李銀秀해군참모총장등 고위장성들이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李海錫소위(26·서울대 대학원)와 金潤錫소위(23·제주대)가 장관상과참모총장상을 각각 받았다.

1억4천만원 賠償판결

서울民事地法 페니실린쇼크死 유족에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吳炳善부장판사)는 24일 페니실린쇼크로 숨진 金永培씨(당시34세·서적외판원)의 부인盧乙順씨(34·서울銅雀區 上道洞259)등 일가족4명이 의료법인성심중앙유지재단(이사장 尹德善·서울永登浦區 永登浦洞94의195)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재단은 원고들에게 1억4천5백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盧씨는 지난해 5월18일 하오2시40분께 서울江南 성심병원으로 기관지통증및 감기증세를 치료하러 갔던 남편金씨가 페니실린계 살균성 항생제인 앰피실린 주사를맞은후 이날하오10시께 숨지자 병원측을 상대로 지난해7월 3억4천6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숨진 金씨는 73년대학졸업후 76년부터 서적외판사원을 하다 77년培永社란 외판매회사를 차리고 관리직5명, 외판사원 28명을 고용하고있었는데 재판부는 金씨의 월수를 1백40만원으로 계산했다.

"당시는 詐欺로 안봐" 邊康雨피고인

어음事件6회공판 證人신문…28일 求刑

李哲熙·張玲子부부거액어음사기사건 제6회 공판이24일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許正勳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李·張부부및 共榮토건 관련피고인에대한 검찰·변호인·재판부의 보충신문과 증인신문을 대부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28일 7회공판에서 구형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공판에는 증인으로 검찰측이 신청한 상업은행의 李炳植상무(51)具本榮이사(54)李根壽 심사1부차장(45)金正友 심사1부심사역(41)임승지교도관(31)등 5명과 변호인측이신청한徐載寬일은상무(52)元相淵日新제강경리담당이사(42)吳豪日新제강자금부장(38)邊衛雨共榮토건 자금담당이사(40)안준기共榮토건 전주식과장대리(30)등 모두10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나머지증인13명에대한 신문을 오는28일구형에앞서 모두 끝내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共榮토건회장 邊康雨피고인은 『李·張부부로부터 자금을빌릴때 초과어음은 물론이고 대여액상당어음도 사채시장에 유통시킬줄은 몰랐으며 발행어음전체를 은행에 담보용으로만사용하는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邊피고인은 이어 은행에 보증용으로만 사용할것으로 생각했던것은 李哲熙가 음성적인 특수자금을 양성화하는과정에서 자금출처를 가장하기위해 은행에 담보로 사용하기를 원했기때문』이라고 진술했다.

邊피고인은 담보어음이 유통되는것을 알게된것은 81년12월이지만 당시 共榮토건발행어음1백10억원이 일시에 은행에 지급제시된것을 李·張부부가 간단히 결제해주는 것을보고 자금사정이 풍부한 것으로 믿고 계속거래할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邊피고인은 검찰보충신문에서 『지금와서 생각하니 사기일뿐이지 당시에는 사기라고 생각할수 없었다』면서 『李·張부부가 결과적으로 사기를 한것처럼 됐을뿐이라고 생각하며 모든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진술했다.

또 李哲熙피고인은 이날공판에서도 『유통을 전제로 했으며 日新제강과 처음 거래때도 共榮과 마찬가지로 대여액 초과분 어음에 해당하는 주식 보관증을 써주며 어음결제가 안되면 처분해도 좋다고 약속했었다』고 되풀이 진술하고 『日新제강은 자기회사 발행어음이 유통되는 것을 알면서도 81년8월 예치금 취입을 권유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에서 신청해 증인으로나온 상업은행간부들은 『회사채지급보증은 한결같이 영업부와 심사부의 사전협의를 거쳐 은행장의 결재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며 은행장이 독단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수없다』고 오히려 전상업은행장 孔德鍾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또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日新제강간부들은 『이번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당좌자산이 부도가 날정이 없었다』면서 日新제강회장張英壽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天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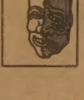
서울刑事地法 許正勳수석부장

큰 判決 앞두고도 여유있는 농담

李·張부부어음사기사건의 재판장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 許正勳부장판사(48·사진)。첫눈에 듬직한 체구가 믿음직하기는하다。공판정의 그를 지켜보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서슬퍼런 판사특유의 분위기를 풍기기보다는 애써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듣는타이프이다。

그는 여러모로 이사건 재판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을 듣는 사람이기도하다。

합의11부에 이사건이 배당된것은 부장인 그가 서울형사지법의 수석부장이기때문이지만 그는 또 수석부장이란 자리에 가장 걸맞는 판사라는 말을 들어왔다。



서울지법이 민·형사지법으로분리된후 역대형사수석부장을 지낸 俞泰興대법원장、全尚錫대법원판사、申正澈대법원판사、金炯琪서울형사지법원장의 면면이 「그자리」의 중요성을 웅변으로 말해준다。「그자리」를 거친 인사중 도중 탈락의경우도있으나 大過없이 일하면 출세가 보장된다는 법조계의 통설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겠다。

수석부장이 재판장으로서 맡는 사건은 대개가 정치적인 사건、피고인이 거물급인사건등인것이 관례로 돼있고 그자리는 비밀영장발부라는 까다로운 업무까지 짊어져야한다。

어떻게보면 재판진행이나 비밀영장발부를 두고 검찰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자리인 것이다。

이런점에서 許부장판사는 적재적소에 앉아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지 모른다。너그러운 성격에 구수한화술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않는게 그의 강점이다。

법원내에서도 「어떤판사와 재판부를 구성해도 소리나지않는법관」이란 중평을 상하간에 들어왔다。한마디로 그는 모가 나지않는법관이다。

법관생활20년중 釜山과 濟州지법에서 근무한 1년몇개월을 뺀 전기간을 서울민·형사지법에서만 보낸것도 다 이 모나지않은 성격때문인듯하다。

그렇다고 판단에도 모가 나지않는다는 뜻은 아닐것이다。

그는 사실판단에 관한한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빠르다는 평도 듣고있다。75년 H전기 陳모여사장의 간통사건 재판장때는 고소인의 전화도청내용을 증거로 채택한 의외의 파격성도 지닌 법관이 바로 그라던가。

요즘의 許부장판사는 큰사건을맡고있는 재판장 치고는 농담도 즐길만큼 여유만만한 표정이다。

『법관은 판결문만으로 얘기하는 법이다』면서 애써 긴장하는 젊은 판사들과 비교해보면 선뜻 관록이 느껴진다。하나 재판이 꼭 「관록」만으로 진행되는것이 아니고보면그의 여유는 아마 天性에서 오는것일듯하다。【崔奎楠기자】

嶺·湖南에 집중豪雨

5명死亡·1명失踪

재산피해 36億

23일 새벽부터영·호남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36억원의 재산피해와 1백77명의 이재민을 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24일 정오현재 인명피해 6명을비롯, 건물52동, 선박62척, 농경지매몰및 유실 6천6백68정보, 도로69개소 4천72m, 하천제방20개소 3천3백72m, 수리시설등 기타 시설구조물 2백57개소가 파손되는등 모두 36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고 밝혔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각지역단위로 긴급복구사업을 벌이도록하는 한편 사망자에대해서는 1인당 위로금30만원과 장례비1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재민에게는 1인당 하루 쌀4백32g, 부식비 3백원씩 1주일분을 지급키로했다.

비에 담무너져 行人깔려 숨져

【釜山】23일하오3시30분께 부산시北區德川洞399 德川洞로터리 31번시내버스종점옆을 지나가던 주부 권순오씨(26·德川洞33의31)가 비에 무너진 칠영공터의 높이2m, 길이3m의 블록담밑에 깔려있는것을 길가던 차효진씨(41·北區龜浦洞74)가 발견, 인근백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聯】

美文化院 방화사건 7회公判

의식화學習등 證人신문

【釜山】부산美문화원 방화및불온유인물살포사건 제7회공판이 16명의 피고인 전원이 출정한 가운데 24일상오10시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安文泰)심리로 열려 증인신문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검찰측이 신청한 文富軾피고인(23)의 공소사실중 의식화학습부문에 대한 증인 崔미애양(24·B여대4년)등 42명을모두증인으로채택했다.

이날 제일먼저 증인으로나선 朴경숙양(21·회사원·강원原州市鳳山1洞1062)은 金鉉奬피고인이 原州교육원에서 주도한 의식화학습에 81년1월3일부터 같은해3월2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7회에 걸쳐 金英燮·文吉煥피고인등과 같이 참석, 전환시대의 논리등을 교재로 공부했으며 의식화 학습중 우리의 현실모순을비판하고 이를 시정해야한다는등의 말이 나온것은 모두 사실이라고진술했다.【聯】

28일께 全國에 비

오늘은 곳에따라 소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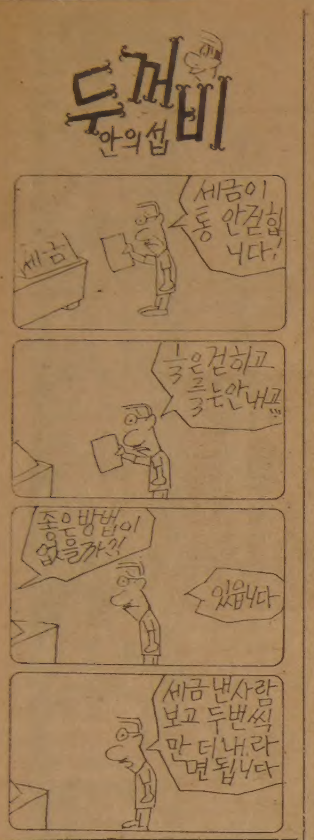
일요일인 25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흐리고 곳에따라 소나기가 내리겠고 28·30일께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기상대는 23일부터 영·호남지방에 집중호우를 쏟은 비구름은 24일 정오현재 동해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갔으나 중국대륙에서발달한 저기압의 동진으로 당분간 전국이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이저기압이 우리나라 남해에 걸쳐있는 장마전선을 활성화시킬 28일과30일 두차례 전국적으로 비가내리겠다고 예보하고 우리나라일대의 기층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어 앞으로도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揚水작업 過勞 40代농부 숨져

【尙州】계속된 가뭄으로 연4일간철야작업을하던농부가 겹친피로로수로에넘어져숨졌다.

24일상오6시께尙州郡咸昌邑 梧沙里앞들에서 이마을 김백수씨(41)가 가뭄으로 물이없는 깊이0·9m 너비1·8m의 수로에넘어져 숨져있는것을 아침밥을 갖고나왔던 김씨의 아들 왕진군(14)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聯】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야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목거리
B536-1692
H245-3539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531-0277

Pender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15% 할인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영(TORONTO 15년 경력)분납가능

가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G. N. Center
① 의류수선부…책임자 결정됐음.
② 가내봉제부…동업자 구함.
○ 다소의 재봉상식과 배달용 차 가지신분으로서 수납창고및 접수사무실 경비 책임 공동 부담할분에 한함
○ 한국노인 실비기숙자 약간명 모집 50세이상의 한국 노인(남녀)분으로서 음식솜씨 또는 베비씨터 뜨게솜씨 자리 기능을 소지한 분에 한해 약간명 모집
★상세문의 : 6~9 pm. ☎: 530-1046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8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동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537-0432

한국、中共과 첫激突

亞洲청소년축구豫選 北韓등 10개國 출전

8월2일

한국 北韓 中共등 10개국이 참가할 제23회아시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동부예선전 대진일정이 확정됐다。

24일 싱가포르의 대회조직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에 알려온바에 의하면 한국은 2일 中共과 대전을 시작으로 예선리그 4게임을 거행케됐다。

이대회에는 당초12개국이 참가신청을 냈으나 브루네이와 스리랑카등 약체 2개국이 불참을 통보、최종참가국은 10개국으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組편성이 다소변경돼 당초 A조였던 말레이지아가 한국이속한 B조로、B조였던 인도네시아 필리핀는 A조로 바뀌었다。

한국은 대회이틀째인 2일 中共과의 서전에 이어 4일 말레이지아와、6일 홍콩、8일 싱가포르와 각각 대전하는데 中共과 B조 수위다툼을 벌일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北韓은 A조에서 1일 日本과、3일 泰國、5일 인도네시아、10일 필리핀과 경기를 갖는다。

A、B 두組 상위2개팀씩이 진출하여 벌이는 준결승전은 12일、결승전은 14일에 각각 거행된다。

◇한국대진일정(한국시간)

▲2일하오10시15분=對中共▲4일하오8시30분=對말레이지아▲6일하오8시30분=對홍콩▲8일하오10시15분=對싱가포르▲12일=준결승▲14일=결승전

◇참가국조편성

▲A조=北韓 日本 泰國 인도네시아 필리핀

▲B조=한국 中共 말레이지아 홍콩 싱가포르

光州商、培材 격파 화랑기야구 6-5로

光州商高는 24일 부산구덕운동장에서 속행된 화랑대기 2회전경기서 朴聲鉉의 3점홈런과 李仁在의 솔로홈런에 힘입어 서울의 강호 培材高를 6-5로 역전승、仁川商와 준결진출을 위한 한판을 벌이게됐다。

한편 24일로 미뤄왔던 慶南-信一、慶南商-北一경기는 이날 비로 또다시 順延됐다。

◇2회전

배재고 002 200 001-5

광주상 003 000 21×-6

▲홈런=朴聲鉉(3회·3점) 李仁在(7회·이상광주상)

韓國선발 日에惜敗 1點差로

【東京23日AP=聯】日本남자대학농구선발팀은 23일 제5차 韓·日정기전 첫경기에서 韓國남자대학선발팀에 77-76으로 이겼다。

서울에서 개최된 작년경기에서는 韓國이 2승1패로승리했었다。

◇전적

日 本 77 (33 44 / 38 38) 76 韓 國

永同商·世光8強에 대붕기 고교야구

永同商高와 世光高가 8강대열에 합류했다。

24일 대구시민운동장에서 속행된 대붕기고교야구 2회전경기서 永同商高는 東萊高에 9-2、7회콜드게임승을 거뒀고 世光高는 培明高를 6-1로 압승、全州商와 대결케됐다。

동래고 000 002 0-2

영동상 023 400 ×-9

〈7회콜드게임〉

세광고 100 200 030-6

배명고 000 001 000-1

日기후縣선발 제압 大京商、韓日농구서

日本에 원정중인 大京商농구팀은 22일 기후縣(岐阜)에서 벌어진 韓日친선고교농구 2차전에서 기후縣 선발팀을 76-75로 제압、2연승을 올렸다고 선수단이 23일 협회에 알려왔다。大京商은 지난21일의 1차전에서 三重縣선발을 92-79로 대파했었다。

失明위기의 다이빙 國家代表 朴暎吉 福祉기금 첫受惠

훈련중 눈을 다쳐 실명위기에 놓인 다이빙 국가대표선수 朴暎吉이 체육인 복지기금의 첫수혜자로 선정돼 지급 최고한도액인 6백만원을 받았다。

체육인 복지기금은 체육진흥재단이 불우한 대표선수및 유망주、유공체육인들을 돕기위해 마련한 것으로 진흥재단은 수영연맹이 체육회를 통해 추천한 朴暎吉선수를심의、첫 수혜자로 결정한 것이다。

朴선수는 오는 11월의 인도 아시안게임에 대비、지난 4월 泰陵 선수촌 수영장서 다이빙훈련중 눈을다쳐 국내서 치료하다가 渡美、1차수술을 받았는데 상태가 좋지않아 한쪽눈은 실명위기에 놓여있다。

체육진흥재단은 실시 첫해인 올해는 7천8백만원의기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는 연간 1억5천만원을 확보、지급할 예정이다。

韓日친선 高校야구 代表선수 오늘출국

韓日고교야구 친선경기에 출전할 고교야구대표팀이 24일 구성되었다。고교대표팀은 25일출국、27일부터 3일동안 日本고교대표팀과 3차전을 갖는다。한국은 통산 21전8승9패4무승부를 기록하고있다。

◇선수단

▲단장=盧禎鎬▲감독=具守甲▲코치=李熙守▲투수=金宗奭·趙啓顯·安聖洙·張虎震·容激▲포수=田龍雨·李常勳▲내야수=李顯琨·姜起雄·盧燦曄·柳仲逸·趙龍吉·良根▲외야수=呂泰九·黃允豪·李政勳·朴元鎭

中共의頂上級 女테니스선수 후나 페盃대회도중 美에亡命요청

【산타 클라라(캘리포니아州)24日AP=聯】中共의 톱랭킹 여자테니스선수인 후·나(18)가 페더레이션컵대회도중 팀을 이탈、美國에 정치적망명을 요청했다고 국제테니스연맹(ITF)의 두 임원이 23일 밝혔다。그러나 美국무부 대변인 러셀·테일러씨는 후·나가 망명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中共 四川省출신인 후·나는 세계적인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

KOC 새위원회구성

副委員長에 金永基·金世源·崔萬立씨

대한올림픽위원회(KOC) 鄭周永위원장은 24일 부위원장 金澤壽씨(체육회 부회장)를 유임시키고 金永基(체육회이사)·金世源씨(아시아체육인 조직위원회 사무총장)·崔萬立씨(KOC명예총무)를 부위원장에 새로선임했다。

金永基 부위원장은 KUSB(대학 스포츠 위원회)위원장도 겸임한다。

◇KOC 위원 명단

▲명예위원장=金澤壽▲위원장=鄭周永▲부위원장=金澤壽(유) 金世源 金永基 崔萬立(이상 신)▲상임위원=金鍾烈 朱瑢煥 金晟集 朴哲斌 金宗河 裵鍾烈 趙東宰(이상 유) 金相謙 崔淳永 崔元碩 田樂 張翼龍 李健熙 金昇淵 李東燦 李明博 朴定求 孫基禎 蔡洙仁 金위생(이상 신)▲위원=閔庚重 趙錫來 趙容時 李健介 李富榕 金鍾潤 金澈鎬 許宗九 鄭仁淳 韓良順(이상 신) 申基秀 趙乃璧 劉利均 李秀永 曺武成 田樂園 姜弼昇 金鎔先 黃天性 李康平 鮮于良國(이상 유)▲감사=李鍾祿 黃忠燁(이상 신)

在日동포 야구선수들 "母國프로팀서 뛰고싶다"

강타자 洪新次·투수 朴悟등 20여명

야구委、드래프트… 선수 個別계약바라 팀들도 환영 세력版圖에 큰변화올듯

프로야구

◆…在日同胞선수들이 내년시즌부터 국내프로야구에 참여、모국팬들앞에 선을 보이게된다。지난76년 모국을 방문、제6회 鳳凰大旗고교야구대회에서 최다안타상을 받았던 강타자 洪新次(24)등 적지않은 숫자의 在日同胞 선수들이 모국의 프로야구에서 활동하기를 열망、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입단절차를 문의해오고 있다。洪은 고교졸업후 실업팀 사이노(西農)運送의 내야수로 활약했으나 재작년 사이노 팀 해체로 선수활동을 중지하고있다。그러나 국내 프로야구 출범소식과 함께 洪은 개인연습에 열중、국내팀의 손길을 기다리고있다는것이 在日同胞 학생야구팀 韓在愚감독의 전언。

鳳凰大旗 8회대회에 출전했던 1m92의 장신왼손투수 朴悟、내야수로 활약했던 金武宣등도 국내프로야구참가를 희망하고있다。朴悟는 현재 近畿大3년생으로 타력을 살리기위해 외야수로 뛰고있다。金武宣은 九州産業大 3년생으로 내야를 맡고있다。

KBO는 국내프로야구 참여를 희망하는 日本대학 또는 사회인야구팀의 在日同胞선수 20명가량을확보、내년 시즌에 앞서 선수부족에 허덕이는 국내프로6개팀에 드래프트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在日同胞 선수들의 수준은 국내선수 A급이상으로 평가되고있어 기존세력판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KBO와 在日同胞선수들은 국내프로팀입단계약조건에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있어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KBO가 6개팀 드래프트에의한 배정을 계획하고있는데 반해 在日同胞선수들은 팀과 선수들간의 개별적 스카웃과 계약을 원하고 있다。

국내프로팀들도 대체로 在日同胞들을 비롯한 외국인선수기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계약방식에 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光州조명시설끝내

◆…24일 光州구장에 조명시설이 완비됨으로써 6개구단 주경기장중 서울、釜山、大邱、光州등 4개구장에서는 주간경기를 모두 야간경기로 치르게됐다。

아직 야간경기가 불가능한 곳은 大田과 仁川。仁川구장의 경우는 이미 조명탑공사를 끝냈으나 전력을 공급해줄 고압변전기가 [illegible] 이 늦어지고있다。

경기30분씩앞당겨

◆…KBO는 심야경기로인해 어린이 팬들의 귀가시간이 늦어지는등의 사회적물의를 없애기위해 경기시작 시간을 낮경기 2시30분、밤경기 6시30분으로 각각 30분씩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경기시간의 단축을 위해 투수견제구에대한 제한、타자들의 배터·박스이탈제한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판數 늘리기로

◆…KBO는 내년부터 심판수를 늘려 격무로인한 오심을 예방할 계획이다。KBO는 현재 순회심판 9명을 3개조로 나누어 주간 3개경기장에 배정해왔다。내년부터는 1개조씩 편성、1주일간 휴식시간을주어 격무를 덜게할 예정이다。각구단 홈구장에 배치된 6명의 주재심판을 순회심판으로 흡수운용할것도 검토되고있다。

美연예인「私生活책」인기

대중의동경과 호기심속에 반짝인 스타들

◇인기스타들의 사생활을 폭로한"자서전이 속속출간, 대중의호기심을 자아내고있다。(사진은㊧로부터 매·웨스트, 존·크로퍼드, 헨리·폰더, 로렌·바콜, 월트·디즈니)

「영화선전」서 「장사」로

개인 삶뿐 아니라 치부까지도 밝혀

게리·쿠퍼의 傳記는 4판出刊 예정

폰다는 疑妻症、보가트는 2重 생활

海外演藝

인기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화제는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비슷한듯。스타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이 끊임없이 따라다니기때문。근자 타임誌는 美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해 적고있다。

요즘 美國에서 가장 잘 팔리고있는 책중의 하나가 유명배우의 전기나 자서전들。

이러한 책들이 얼마나 사실인가는 의문의 여지가많다。왜냐하면 초기의 할리우드영화업자들은 영화의 선전을위해 주연배우들의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꾸며댔기때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배우들의 적나라한 삶을 밝힌 책들이 출간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존·크로퍼드와 에롤·프린의 전기는 두권째 나왔고 게리·쿠퍼의 전기는 4판의 출간을 서두르고 있을 정도。이러한 책들은 배우들의 치부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겪어야했던 삶、또 배우이기에 당하는 2중의 고통까지 비교적 솔직하게 밝히고있다。

「타이론·파워의 감추어진 삶」은 파워가 동성연애자였음을 밝히고있으며 찰즈·히감은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에서 에롤·프린이 동성연애자였을 뿐만 아니라 나치의 한수인이었음을 폭로하고 있다。또 흑인배우 시드니·포이티어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사춘기에 성병에 걸렸었다고 고백했다。존·폰테인은 「장미꽃잎의 침대는 없다」는 제목의 자서전에서 배우이기에 겪어야만했던 어머니와의 불화、언니 올리비에·디·하빌랜드와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밝히고있다。그는 언니가 46년 아카데미상 최우수주연여우상을 받았을때 축하하러 찾아갔다가 당한 아픈 기억을 이렇게 쓰고있다。언니 올리비에가 수상소감연설을 마치고 무대뒤로 왔을 때 축하해주려고 언니에게 다가갔어요。그런데 언니는 나를 힐끗 보더니 내가 내민 손을 본척도 않고는 오스카트로피를 가슴에 안고는 그대로 지나쳐버리더군요。

이밖에 이러한 자서전들은 험프리·보가트의 2중생활、헨리·폰더의 의처증까지 담고있다。

이제 사람들은 앨런·라드를 스크린 속에서 보이는 냉정한 인물로 보지 않으며 빙·크로스비는 멋진 사랑노래를 부르는 홀륭한 가수가 아니라 아내에게 난폭했던 부도덕한 사람으로이해한다。

또 존·크로퍼드는 영화에서처럼 균형잡힌 인간형이 아니라 신경질적이고 가학적인 성격을 지닌 괴물임을 딸 크리스티나·크로퍼드가 써낸 전기를 통해 알게됐다。

이러한 인기연예인들의 삶은 사실 보통사람들의 그것과 다를바 없다。진·타이어니는 「자화상」에서 『만일 나의 삶이 영화화된다면 감독이 주역배우로 나를 기용할지는 의문이다』고 쓰고있는데 이같이 배우들의 삶은 영화속의 줄거리와는 매우 다르다。모든 사람의 삶이 영화적인 요소를 갖고있듯이 그들의 삶도 그런 측면이 있을 뿐이다。

대중의 인기연예인들에 대한 호기심은 그들에게 得도 될수 있고 失도 될수 있다。그러나 유명스타일수록 이러한 호기심이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으로 끝나지않고 바로 영화에 대한 동경과 관심의 표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타임誌】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72>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양달⑦

고여사의 그런 동작은 무심한듯 하면서도 아무도 섣불리 흉내 낼수없을만큼 고도의 세련미를 풍겼다。

긴 머리에 가려 표정만 보이던 얼굴이 윤곽까지 드러났다。얼굴이 너무 많이 머리결 뒤에 숨어있어 필시 볼이나 귀 언저리에 흉한 험이 있으려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여릿 여릿 애티조차 나는 예쁘고 작은 얼굴이었다。

고도로 세련된 연출솜씨를 바라보듯이 수진는 새록새록한 그 여자의 변모를 숨죽이고 눈 여겨 보았다。아무리 숨죽여도 탄식이 새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여자가 찻잔을 받쳐들고 무중력상태속을 유영하듯이 부드럽고 소리없이 걸어 왔다。그여자의 길고 깡마른 손엔 보석장수답지않게 아무것도 끼고있지않았다。그러나 그여자가 그손으로 은에다칠보를 입힌 호사스러운 설탕통과 크림통을 열자 담박 그 은그릇들이 그여자의 액세서리가되어 그여자를 돋보이게했다。그여자의 헐렁하고 우중충한 옷에도 아무런장식이 없었다。그여자는 코피를 두사람에게 권하고 자기는찻잔을 입에 대는둥 마는둥 하면서 그여자 독특한 낮고 빠른 소리로 지껄이기 시작했다。

『이런 장사 하면서도 보람은 있다구요。어떤 때가 제일 즐거운 줄 알아요? 오늘처럼 삼위일체가 될때가 가장 살 맛 나죠』

『삼위일체라뇨?』

기욱이 그 여자의 말에 얼른 끼어들었다。

『삼위일체도 몰라요?』

『글쎄요。대학입시공부할때 보던 영어 참고서가 삼위일체였던가?』

기욱이 어리석은 척 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어숙하게 물었다。

『첫째 보석、둘째 세팅、세째 그것을 지닌사람。이 세가지가 극상(極上)으로 빼어나 서로 조화를 이루었을때를 나는 꼭 그렇게 말하죠。하지만 그게 여간 어려워야말이지。한다리가 길면 한다리가 짧고 아예 한다리는 없어서 두다리만 가지고 평형을 유지하려니 곧 들통이 나버리는건 두점만 주고 평면을 이룩할수없는것처럼 명백하거든。부자들은、특히 벼락부자들은 그저 다이어먼드면 제일인줄 아는데 실상 국내에 들어와 판을치는 다이어먼드의 질이란는게 천차만별이거든。미스터 남이 가져온것같은 극상품이 그렇게 흔한게 아니니까。내 눈엔 빼어난 자수정(紫水晶)만도 못한것도 그저몇캐럿에만 현혹돼서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꼴이라니。그렇지만 그런거야 보석 못난거 하고 사람 못난게 끼리 끼리 잘 만났군 하고 눈살이나 한번 찌푸려주면 그만이지만、어쩌다가 있는 빼어난 보석이 돈푼이나 좀 있다는 것밖에는 생긴거나 속에 든거나 보잘 것 없는 인간을 꾸며주고 있는 걸 볼때는 한심하다 못해 이 노릇 자체에 비애를 느낀다니까。그야말로 개발에 편자지。말이야 바른대로 말이지 내가 남다른 미적안목과 영감을 가지고 세팅한 빼어난 보석들이 ─ 난 빼어난 돌 아니면 아예 세팅해 주지도 않지만 ─ 개발에 편자 안된게 몇 안돼요。내가 세팅해준 보석을 달고 다니면 저절로 제격이 올라가는줄 아는지 서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아우성이지만 편자가 개를 준마(駿馬)로만 들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본디 제 생긴 거나 인품까지 달라질 턱은 없거든。결국 보석 따로 사람 따로 노는 꼴불견을 연출할 수밖에』

빅·모로 헬機事故死 映畵「전투」主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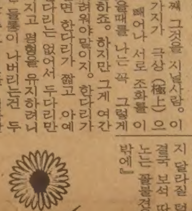
◇빅·모로

TV시리즈영화 「전투」의 불사신분대장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美영화배우 빅·모로가 영화촬영도중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월남어린이 2명과 함께 23일 사망했다。향년 50세。

사고는 워너·브러더즈社제작의 월남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영화 「트와일라이트·존」의 촬영중 카메라맨이 타고있던 헬기가 모의전투에서 튀어나온 파편에 맞은뒤 1백여명의 배우들이 모여있는 세트장에 떨어지는 바람에 일어났다。

사고지점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80㎞ 떨어진 개인소유의 인디언듄스 공원이었다。

모로는 지난1월24일내한、宇進필름제작의 「아벤고공수군단」에서 부대장 알렉산더 대령역을 맡았었다。【AP】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오전10：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영어설교 오후1:30 오후 2: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00 유년중고장년모임：3시 20분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30 수요예배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10: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8: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0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전11:0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전11:00 주일오후 1:00 금요오후 7:3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용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447-6847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주일학교 3:00 예배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2시반 영어예배 1:30 새벽기도 6: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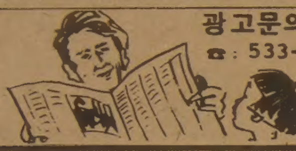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광고문의 ☎ : 533-2361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판매·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에어콘
시설·수리·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페인트 하실일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45-6792 (Mr. 우)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십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530-0522, 531-4165(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매니저 구함.
조건 : Stock인수, 주매상 : $9,000이상.
전화 : 881—4007 (Mr. 윤)

가게 맡아서 운영하실 분 구함(Gift Shop)
(Bathurst 와 Duffrin 중간지점) 776 St.Clair Ave. W
11시에서 4시 사이에 직접내방 바람.

Canadian 남성(Mid 30's)으로서 친구가 되어
주실 매력있는 한국여성을 찾읍니다.
오후 6시이후. 전화 : 787—3302 (David)

가게맡아서 하실분 구함(보증금 약간 필요)
매매도 가능. 오타와 지역.
전화 : 1—613—238—3837

햄버거숍에서 일하실 분 구함.
영어하실 수 있는 분 환영. 침식제공 월 700불
전화 : 1—705—748—9722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 분
전화 : 439—6428, 431—7168 (Mrs. 김)

구직

다운타운에 가까운 Weat Area.
출퇴근하며 아기 성심껏 보아드리겠읍니다.
전화 : 423—3114 (Mrs. 신)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개인지도

영어 개인지도 해드립니다. 쓰기, 읽기, 어휘등 단계적으로 체계있게 지도해드리며 시간당 $10로서 하루 Course는 5시간에 $50되겠읍니다.
성심 성의껏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도해 드리는 것을 약속합니다.
전화 : 225—7648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884—5573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한 Mall안에 있는 Variety Store
가정형편상 아주 싼 값에 드립니다.
1250 South Service Rd, Miss, Ont, 278—3975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 Ne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3,000 렌트: $300(M) 전화: 259—0323

Variety Store for Sale (Hwy 10×Dundas)
주6일 Open, 주매상 : $4,300
Video Machine에서 월 최저 $1,000 보장.
리스 : 2년 + 5년, 렌트 : $750
가격 : 5만 + 스탁 (Mortgage 가능)
전화 : 276—3266

보석상 (Bloor & Bathurst)
가게와 장비 포함, (월요일은 쉼)
10:00 a.m~6:00 p.m 전화 : 532—1525

Variety Store 매매, (관심있으신분 내방 바람)
주매상 : $9,000이상, 361 Carrville Rd,
Thornhill, ont,, Hill Crest Mall 옆길.

Vancouver Downtown 좋은 위치.
단골 고객이 많은 성업중인 Discount옷가게, 전강상 매매.
년매상 : $180,000, 아스킹 : $39,000
리 스 : 2년+3년 옵션.
주6일 영업(10:00 a.m~6:00 p.m)
전화 : 239—2193

Variety & Grocery Store 급매
전화 : 694—7848

전망 밝은 모텔 매매
현대식 45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토론토에서
한시간거리에 상업도시에 위치, 10%의 Mortgage
Tom Szymanski
Yanka Realty Inc, 537—4156 or 755—9080

Variety Store (Rogers & Oakwood)
주매상 : $3,500
Patrick Ho, Real Estate, Jack 593—8967

Convience Store for Sale (St,Catherine지역)
년매상('81): $240,000, 리스 : 5년+5년
Rent : $900, 아스킹 : $26,000, 전화 : 266—5895(Mr. Kim)

Grocery Store (Montreal 지역)
주매상 : $6,000(포도주, Beer, 화초등도 취급)
아스킹 : $63,000 + Stock, 리스 : 3년 + 5년
이층에 5 Bed Rm.이 있으며 뒷뜰에 정원이 있는 일급주택가에 자리한 살림집도 타협에 의해 Rent 가능함.
전화 : 1—514—674—6845 (Mr. 박)

Variety Corner Store for Sale
이층 살림집 포함, 주매상 : $4,000
전화 : (1)—529—0018 Mr. Kim (Hamilton)

Variety Store
주매상 : $5,000이상, 리스 : 5년 + 5년
361 Windermere Ave, (Jane & Bloor)

Wallpaper & Paint Business for Sale
20년간 성업중인 최고의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
위치 : Kennedy & Lawrence, 아스킹 : $55,000
(매우 바쁘고, 확장 번창하는 Plaza안에 있음)
Store는 Air Con, 장치가 되어있으며 보기에도 깨끗함.
전화 : 266—3151 (Grace Becker) Royal Trust CORP. OF CANADA REAL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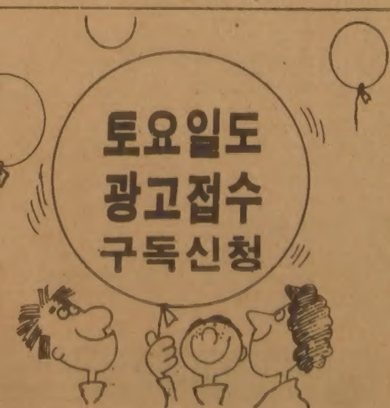
Variety Store 급매,
또는 Management하실분 구함, 주매상 : $3,500
리스: 15년 전화 : 651—1577, 656—5358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300
전화 : 699—4804

Fast Food Take—Out, 새로지은 Mall
(미시사가 지역) 주매상 : $1,800, 아스킹 : $50,000
전화 : Luba, 624—4247, 826—5942

Glass Shelf, 카운터등 (Gift Shop용)
전화 : 425—9839

Pharmacy & Variety Store for Sale
원하면 건물도 매매 가능함, 월매상 : $10,000
(투자가치가 좋음) 서부지역, 전화 : 781—2560 (Sarkis)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 ~4
한국일보광고부

가게렌트

성업중인 Grocery Corner Store Business for Rent.
안전하고 발전성있는 투자.(Franchise)
전화 : 259—2123

아파트렌트

One Bed Room 아파트 세놓읍니다.
$325/M, College & Dovercourt
전화 : 531—6183

1 Bed Rm, Apt, 세놓음, (Downtown)
Sherbourne & Wellesley (언제든지 입주가능)
$380/M, 전화 : 537—3608 (Mrs, 리)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충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4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청 춘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주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서×로얄욕) 전화: 255—1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윈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